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211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10월 1일 월 간

[1]



케바스도리 14면

후학양성에 바친 30년 외길



관악추추

지난 8월31일에 17분의 모교 은사님이 정년을 맞아 퇴임하셨다. 50년대와 60년대에 모교에 부임하여 4·19, 5·16, 10·26, 12·12, 5·17, 5·18, 6·10을 겪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대학이 아직도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외국잡지조차 사서 볼 수 없었던 어려운 시기에 세계에서 떨어진 「학문의 孤島」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의 기를 닦으셨으며 모교에 오늘의 발전을 가져온 밑거름이 되신 분들이다.

학내에서도 4·19학생혁명, 6·3비상계엄령, 民比研 사건, 釜馬항쟁, 5·17비상계엄 확대조치로 공포분위 기속에서 움게 연구조차 할 수 없었던 신상을 겪은 분들이 이들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정년을 맞은 것

은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역대정권이 서울대학교 교수를 소모품으로 끌어들이며 외도를 하게 유혹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년때까지 용하게 학교를 지킨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년퇴임교수님 고맙습니다

80고령화 사회에서 65세는 아직도 장년에 불과하다. 한참 축적해 놓은 학문을 더 전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나 모교로서나 큰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대학들이 정년 연령을 70세로 하거나 숯제 종신토록 강의를 하게 하는 것

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정년퇴임은 강의 의무시간수의 면제일 뿐이고 자유로워진 많은 연구시간을 가져 명예교수로서 후학을 지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쌓으신 경륜을 펴 국가의 발전과 모교의 융성을 위해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란다.

모교의 정년퇴임교수나 명예교수들에 대한 대우는 아주 나빴다. 정년과 함께 정든 연구실을 비우고 옮겨갈 서재조차 좁아 평생 모은 책을 버리고 가시는 것을 볼 때 가슴 아프기 짝이 없었다.

다행히 모교와 동창회에서 명예교수를 위한 연구동을 새로 짓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빨리 연구동이 완성되어 평생을 모교에 바치신 선생님들이 모교에서 다시 연구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들이 옥체만강하시기를 빈다. (哲)

동창회관 「관악홀 의자 실명제」 실시 3백개 교체...동문정성 기다려



동문들로부터 기증받아 새로 교체하게 될 「관악홀」 의자

본회는 지난 8월 孫京植(61년 法大卒·제일제당회장)동문과 姜晋求(57년 工大卒·삼성전자 회장)동문의 협찬으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의 일부 보수공사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3백석의 의자 노후가 심하여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회에서는 동문 3

백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기증받아 의자를 새롭게 제작,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일 본회를 방문한 李典九(64년 農大卒)前뉴욕지부동창회장이 10만원을 기증했으며 12일 열린 편집회

의에 참석한 논설위원들이 각각 10만원씩을 기증하는 등 총 18명(의자 18석)의 동문이 참여했다.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후 전화연락 바람. 온라인: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702-2233

현재까지 출연자 명단(가나다순)

△姜孝植백병원치과부장 △丘月煥연합통신출판국장 △金榮國모교교수 △金在淳본회회장 △朴紀正동아일보논설위원 △朴世熙모교교수 △朴應七KBS해설위원 △孫一根백상기념관장 △辛容泰모교석사과정 △安炳璠시사저널발행인 △尹相澈수정약국대표 △李世霞본회사무처장 △李年憲충주MBC사장 △李典九뉴욕골프센터대표 △李炯均프레스센터전무 △鄭宗澤본회상임부회장 △崔主鎬우성그룹회장 △河永基제일생명고문

태국지부

金錫鍵회장 유임

泰國支部同窓會(회장 金錫鍵)는 지난 7월21일 방콕 시내 엠버서더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鄭舜盛간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대사관,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된 신입회원과 귀국하게 된 동문간의 인사가 있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金회장과 鄭天亮감사는 유임됐으며 부회장에 金麟燮, 金相輝, 朴雲泳, 金英輝, 安景子, 吳正一동문을 선임했다. (燮)

재미동창회 재단이사장 李丙俊회장이 겸임

재미서울대동창회재단(이사장 金永基)은 지난 7월29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金永基이사장의 후임으로 李丙俊동문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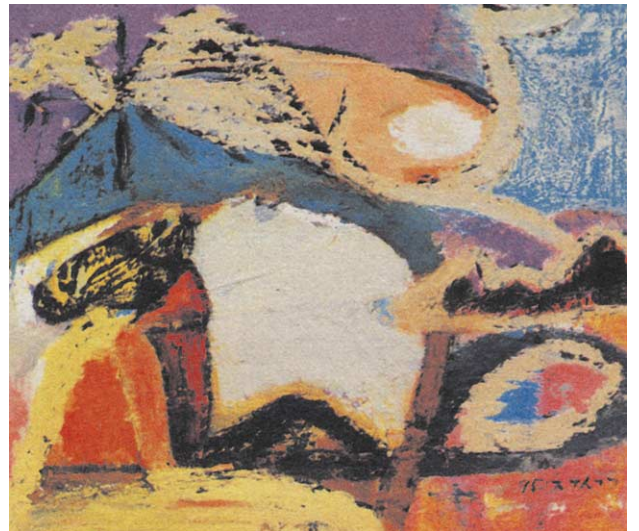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난 5월 재미동창회 제3대 회장에 선출된 李丙俊회장은 향후 2년간 재미동창회재단 이사장직을 겸하게 됐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해온 金永基동문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李회장은 재미동창회 임원으로 수석부회장에 吳仁錫(62년 法大卒·뉴욕지부동창회장), 재무국장에 成周慶(72년 商大卒), 재미동창회보 편집인에 權相禧(85년 社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미술작품

李柱淑作



「서정별곡 II」 캔버스에 아크릴릭 1994, 38×45cm

〈작가 약력〉

△1951년 청주출생
△1974년 서울대 미대졸
△1986년 제1회 개인전
△1992년 한·중·일 국제교류전
△1993년 대한민국 종교인미술전
△1994년 뉴욕모던아트전
△1995년 제8회 개인전
△현재 대한민국미술협회, 창작미술협회, 한울회, 세리의회 회원

〈작품평〉

李柱淑동문이 작품제작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조화의 미와 색채감이 뚜렷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이성적으로 잘 통제된 예술적 상상력에 의해 색채에 대한 단순한 감각적 탐닉이나 유희에 떨어짐이 없는 이지적 조형의 세계를 보여 준다. 작가의 그동안 작품에 비해 화면의 형상들은 보다 간결해지고 색채의 질감은 보다 중후해져 작가가 어떤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목된다.

朴廷基(70년 文理大卒)호암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본회는 앞으로 동문여러분의 미술작품(회화, 조각등)을 계속적으로 기증받아 전시회를 개최, 판매수익금으로 모교의 장학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뜻있고 관심있는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전화 702-2233)

10월22일 등산대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출발

—가족동반의 하이킹코스...푸짐한 점심과 경품도 준비



동문을 비롯한 서울대가족을 모시고 「동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등산대회를 올해에는 10월22일 거행합니다. 서울대가족이 모교를 찾고 동문상호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뜻에서 거행되는 이 행사에 참가 동문의 수가 해마다 격증하여 이번 대회에는 5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올해는 李秀滿(78년 農大卒)동문의 사회로 모교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동아리 「마당패 탈」, 「메아리」의 공연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가을을 만끽하고 모처럼 학창시절의 옛 정을 되찾는 자리가 될 것이오니 많이 나오셔서 흥겹고 보람있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 일 시 : 10월22일(日) 오전9시 출발
-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 참가범위 : 동문 및 동문가족
- 산행코스 : 관악산계곡→모교 농생대수목원(안양유원지윗쪽)
- 문의처 : 전화 702-2233~5
- 참가비 : 없음
- 제공물 : 도시락·식음료등
- 경품 : 다량의 물품 추첨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서울法大 기독교동문회(가칭) 창립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이 되어 만난다는 것은 우리들이 한 대학에서 같은 스승을 모시고 동문수학했다는 것 보다 더 위대하고 의미깊은 일입니다. 중생(重生)의 기쁨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는 주님께서 대신 사시는 삶이므로 그 이전의 삶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삶을 더 깊이 살다보면 버렸던 이전의 삶을 다시 찾아 이것까지도 의미있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탐구를 위한 우리 서울법대의 고귀한 전통을 자부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귀중한 일이지만 주님의 지체(肢體)된 개개인이 다시 모여 성령안에서 변화된 관계를 가지고 친교(KOINONIA)를 나눈다는 사실이 우리를 잠잠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세기가 다가오고 있고 사회와 시대 전반이 변전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법·제도·사회의 틀도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 바탕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 인격적 변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바로 우리 법대동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울법대 기독교동문회를 창립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동문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접촉하셔서 새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민족과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모임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일시: 1995년 10월 23일(월) 오후 7시

2. 장소: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동승동 구 서울法大캠퍼스)강당

김치걸(법전 10) 김병화(성대 9) 서장석(법대 1) 이태영(3) 김효영(4) 김치선 이한용 이희철(5) 정기승(7) 홍승환(8) 공노명 김재호 김인숙 서정화 조행숙(9) 김승식 김준호 안명기 이진우 정상호(10) 강홍구 김달식 김두기 나석호 박동순 윤종수 이대순 이세중 이영수 이한준 임두빈(11) 김영훈 김현산 김정열 석성환 어윤배 유상호 윤승영 정윤영 장선섭 전철순(12) 권영일 김공식 김동욱 김용준 문영길 박재윤 이정현 이철주 이홍근 오세방 윤종수 정태창 한덕수 홍순영(13) 강신욱 고종진 김광석 김을섭 김진탁 신갑철 양인석 이기환 이범록 이승환 장동호 정상학 정세욱 정우모 최대권 최병수 허리훈 홍근수 홍인기(14) 김종정 이돈희 이세창 이종순 함석재(15) 광창욱 김광년 김광일 김도연 김현철 김형선 유홍수 정지형 차수명 최공웅(16) 가재환 김기석 김학세 노원욱 문종수 박준서 변재삼 서건익 이용훈 이창구 임상현 임태유 최대화 최승민(17) 강기원 김병학 김성길 김성룡 김유성 김인호 김영철 김종혁 김주훈 김항경 김태정 도재승 박동섭 박양한 박정선 변정일 손진곤 신호현 양인평 유영철 이대공 이용우 이일우 이재덕 이재춘 이정환 이호균 이홍길 이환균 전순호 전용태 정기호 정종현 최기정 최성학 최승홍 한진유 현경대 황인철 황희주(18) 강명식 김 군 김명배 김성수 김영대 박재철 박태영 사부성 서정우 원우현 유인의 윤성태 윤명원 윤호일 이기영 이문재 이보환 이성용 이영이 이용웅 조성일(19) 강현중 김근조 김호태 박창일 문윤길 이건웅 이신섭 임청일 정대철(20) 김 명 백남치 손광현 송인준 양원석 이정옥 이상지 이성준 진치남 최경원 하죽봉 황상현(21) 강민형 강정구 곽 철 김성한 김성호 김승규 김영훈 김 홍 김대웅 나형수 박무용 박홍규 안덕규 유창종 유 현 윤태남 이국주 이찬욱 이창식 임영민 장석화 조용상 최상기 추광태 한상훈 허진호 황산성(22) 박재윤 손지열 윤지준 최경보 황우여(23) 김상철 김영섭 김용담 김익수 김정섭 김학원 노태호 도재성 박민환 손성일 양승태 유영혁 유정석 윤순성 임웅순 장지석 최승호 최종고 최영진 한상삼 황장훈(24) 김황식 이공현 이우근 이현승 정은환(25) 박연철 박충근 배한수 손기식 양봉석 이병준 정도출 지승원(26) 권오승 김정욱 김창석 박영현 서현제 송기영 원정연 유성근 이 원 임상순 조대현 채수열 최명익(27) 김병재 김영우 김용갑 박동현 박일우 신기남 우창록 여상조 이재철 정경택(28) 광종훈 김완식 문형식 박성근 백영엽 백현기 신동운 윤재윤 임탁규 장용국 정태용(29) 김이수 윤세리 이원희 이준규 임태성 한창호(30) 나규우 심병련 윤진수 윤장근 하중선(31) 권택수 박성덕 성기문 양명수 윤용석 이상곤 이희재 정장오 조병현 현종찬(32) 문홍수 이재환 조배숙 정현수 최재형(33) 김 신 김연수 김용호 김윤성 김재훈 노인수 문용선 문용호 박찬수 심규철 정무원 조영수 황덕남(34) 김현철 양승국 임준호 성낙송 조근호(35) 김항동 박영범 변환철 성민섭 윤종현 임종현 전재중 최정식(36) 경수근 김한주 유철환 조경란 황규민 황도수 임병렬(37) 박진순 서상수 조성국(38) 김영섭 양재영 유재만(39) 박태식 원화룡 유 옥 허 범(40) 김우진 신명훈 윤영식 윤희웅 이상민 이진만 이홍락 장용기 조남관 최성남(41) 김재현 김형두 박은영 박치봉 양재식 이평근 정선재 최윤수(42) 김환수 유 정 유철형 이정우 이현철 한창호(43) 김한신 윤승은 이희영 장일 전종민 잔용희 최인호(44) 강상진 박홍규 전지원(45) 김범준 백강진 변응재 오영준 전문수 정치영 호재훈 홍준호(46) 강수진(47)

대표 김치선 (법대 5회)

연락처 송기영 변호사(27) TEL 595-0550 FAX 595-0554

의대동창회

회관건립기금 조성안 마련



지난 13일 열린 의대동창회 지회장회의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13일 하얏트호텔에서 95년도 지회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韓格富고문,

姜信浩명예회장을 비롯, 金周一과주지회장, 韓薊徹삼성의료원지회장등 50여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李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창

가정대동창회

개교기념 화보집 발간 준비



가정대동창회 정기이사회(좌로부터 세번째 李仁子회장)

家政大學同窓會(木蓮會·회장 李仁子)는 지난 16일 서초동 소재 「서울탑」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2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모교 개교50주년을 맞아 1억5천만원을 목표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개교기념 화보집 발간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최근 金珍淑(77년 의류학과) 동문이 과천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눴다. <志>

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각 지회장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현재 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純炯학장은 학생기숙사 신축과 학사업무 진행상황등 모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회무보고와 임원소개가 있었으며, 동창회 활성화와 각 지회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朴容熙(모교병원 부원장)동문은 이날 모교병원이 동문들을 위한 진료의뢰 전달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미네소타지부

가을골프대회 열기로



지난 14일 미네소타支部同窓會 총무이사인 任漢慶(67년 文理大卒)동문(사진)이 본회를 방문, 李世霞사무처장과 동창회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평통자문회의 참석차 귀국한 任동문은 『미주지역 동창회와 총동창회 임원진의 데이터를 제작, 서로 교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同支部에서는 현재 동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 「가을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대 관악이전방안 협의

본회 金在淳회장, 高학장등 예방받아



本會 金在淳회장은 지난 25일 「샘터」를 방문한 朴振煥농생대동창회장(사진중양)과 高學均농생대학장(사진右)을 맞이해 환담을 나누었다.

朴회장은 현황보고에서 『현재 동창회 기금으로 1억5천만원 정도가 예치돼 있으며 오는 18일 교수회관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에 당선된 동문들을 위한 축하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高학장은 『농생대가 내년에 개교9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농학의 과학화, 첨단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吳仁錫·李典九씨등 해외동문 모교찾아 발전기금등을 논의



좌로부터 본회 李世霞사무처장, 吳仁錫동문, 모교 李壽成총장, 安京煥기획실장, 鮮于仲皓부총장, 李典九동문

지난 6일 평화통일자문회의 참석차 뉴욕支部同窓會 吳仁錫(62년 法大卒)회장과 LA支部同窓會 李典九(64년 農大卒)前회장이 본회 사무처를 방문, 李世霞사무처장과 해외지부 활성화 및 개교 50주년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모교 총장을 예방한 자

리에서 두 동문은 해외동문들의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많은 관심을 전달했으며, 본회 李世霞사무처장은 지난 7, 8월 본회 회장단 해외지부 순방중에 해외 각지 동문들로부터 수렴한 모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燁>

법대9회

신임회장에 李海遠동문 선출



좌로부터 두번째 徐廷和本회부회장, 崔斗衡전임회장, 李海遠신임회장.

법대9동기회(九法會·회장 崔斗衡)는 지난 14일 오후7시 29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테헤란로「桃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崔회장은

은 인사말을 통해『졸업40주년을 맞이하는 구법회의 기나긴 연혁과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왕성한 참여와 관심을 보여 주는 여러 동기에게 깊은 감회와 또 감사의 정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4년간

同會의 운영을 맡아온 崔회장은 지난 동기회 활동과 운영에서 느낀 소감을 피력하며, 차기 운영진 선출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신임회장으로 李海遠(한국우드워드디커슨 대표이사)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새로운 운영진 구성을 함께 일임받은 신임 李회장은『소임을 다해 성원에 힘껏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법대17회

동문유자녀에 장학금 전달

법대17동기회(회장 崔勝民)는 최근 작고한 동문 유자녀의 향학열 고취를 위해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95년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은 대학생은 8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씩 故 권재모·송기종동문의 자녀를 비롯해 5명의 유자녀에게 각각 지급됐다.

지난 80년부터 시작된 장학금수여는 연간 8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매분기별 심사를 거쳐 지급되고 있으며, 崔회장은 향후 기금이 증가되는대로 장학금 수혜의 폭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원공학과

회원명부 이달말 발간

자원공학과동창회(회장 柳尙熙)는 95년도 학과동창회 명부를 이달 말경에 발간기로 했다.

지난 93년에 이은 이번 명부발간은 92년 이후부터 자원공학과 과사무실에서 동문의 주소변경 및 기타사항을 전산 처리로 수정해오던중 2년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약대「동창의 날」축제

10월8일 모교 노천극장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오는 10월8일 오전10시 모교 관악캠퍼스 노천극장(우천시 약대 강당)에서「제14회 동창의 날」축제를 개최한다.

기별, 지부별, 최다 참가상 등 다양한 시상과 푸짐한 상품이 마련된 이날 행사는「관악캠퍼스 걷기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약대 동문들의 흥겨운 한마당이 될 것이다. (문의전화: 약대동창회 701-3456)



지난 8월24일 열린 준비위원모임에서 식전기도를 하고 있다.

법대 기독교동문회

10월23일 창립총회 열기로

法대기독교동문회가 오는 10월23일 오후7시 동송동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구 법대캠퍼스)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同會의 창립을 위해 54명의 동문이 두차례에 걸쳐 준비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 5백여명의 동문이 참여하고 있다. 기독교동문들의 코이노니아를

통한 동문 및 재학생의 복음화와 실천적 신앙생활의 공동체적 추구에 목적을 두고 창립되는 법대 기독교동문회는 이번 창립을 계기로 각 단과대별 모임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同會는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 宋基榮변호사 TEL: 595-0550 FAX: 595-0554)

수원지부

10월 명부발간, 12월 정총개최

수원支部同窓會(회장 邊尙鉉)는 10월중 6백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연락처가 담긴 명부를 발간할 예정이다.

94년부터 시작한 명부제작 사업은 그동안 자료와 인력부족으로 미뤄져 왔으나 최근 간사 1인을 따로 두어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 이번에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또한 同會 수석부회장인 沈載德(63년 農大卒)동문이 수원시장에 당선되는 경사가 있

었다.

한편 同會는 9월20일 팔달구 인계동 소재「목림가든」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95년도 하반기 사업을 논의한 결과 오는 12월7일에 정기총회를 개최기로 하고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는대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총회는 가족동반으로 장기자랑, 기념품 추첨행사등 그 어느때보다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煥)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이준열사 흉상제막식에 참석하는 길에 관광차 암스텔담의 운하를 유람선으로 돌아보기로 했다. 운하를 유람선으로 돌며 양편의 고색창연한 건물과 경치를 보는 것은 관광객에게 잊을 수 없는 정취와 감흥을 안겨주는 일이다.

우리 일행과 함께 유람선에 타고나서 자리에 앉았을 때 또 다른 일단의 한국관광단이 들어닥쳤다. 그들을 안내하고 온 듯한 젊은 사나이가 우리 일행을 향해 『혹시 교회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라고 소리쳤다. 『아닌데요. 그런데 왜요?』하고 묻자 그는 찌푸린 표정으로 『글쎄 얼마전에 한국관광단이 유람선에 오르자마자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해서 유람선 항해가 끝날 때까지 무려 열여덟곡을 불러대는 바람에 동승했던 외국인은 물론 유람선 승무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에는 한국인은 다시는 태우지 않겠다고해서 난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찬송가를 유람선에서 부르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듯이 대답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김포공항에서 멀리 떠나는 신도를 위해 교인들이 빙 둘러서서 찬송가를 불러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를 신문보도를 통해 접한 적이 있다.

그때만해도 『우리나라 공항에서야 뭐 그리 문제 될 것이 있나』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느리나무광장

李炯均
프레스센터전무



세계화, 말로만 안된다

최근에는 신문에 망신살 해외여행이 여전하다는 뉴스가 실리는 것을 보고도 이제 점차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 암스텔담 운하의 찬송가 얘기는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다. 다른 추태야 무식한 외국인도 개인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이겠지만 집단적인 찬송가 합창은 아무래도 오늘의 한국인이 지니는 세계화의 현주소와 에티켓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로 아직까지도 씁쓸한 맛을

지을 수가 없다.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첫째로 장소와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때문에 한국인 전부가 비난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점이다. 운하 유람은 정말로 조용한 가운데 주변의 경관을 감상해야 한다. 그곳에서 찬송가를 열여덟곡이나 불러댔으니 관광의 의미는 찾을 수가 없다. 둘째로 유람선 안에 한국인만 전부 타고 있었다면 또 모를 일이다. 전 세계에서 온 외국 관광객들이 같이 타고 있는 배에서 한시간 동안 합창을 해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셋째로 운하는 성지도 교회도 아니다. 찬송가를 불러야 할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교육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을 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빨리 고치려면 대가를 치뤄야 한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철저히 당해야 한다. 한국인은 유람선을 안태우기로 했든가, 한국인은 출입사절이라든가, 한국인은 돈을 더 내야 한다든가 하는 따위의 보복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다.

세계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룬 후에야 된다. 더 빠른 방법은 추태를 부린 사람에게 다시는 여권을 내주지 않는 독재방식을 쓰는 것이다.

이 방법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겠지?

(본보 논설위원)

명예교수칼럼

“먼 훗날 큰 힘이 되겠지”



李海京 명예교수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항공기 공업을 담당할 일꾼을 키워보겠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재양성 효과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항공기공업이 발전하려면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항공기공업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항공기공업에 대하여 이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세운 바가 없다. 이런 환경하에서 우리들 항공공학과 교수들의 생각은 국내에 항공기공업이 없더라도 선진국에서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설계·제작했다. 그 이후에는 중형항공기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내 여건상의 변화가 9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국산항공기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로서 훈련기의 국산화로 불리는 KTX사업이 군에서 시작됨으로써 항공기의 설계와 제작을 국내에 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창공91로 명명된 경비행기를 KAL기술진이

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기락 불안도 느껴져

이와같이 여러개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보는 나의 심정은 우리들이 길러낸 제자가 일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호뭇함을 느낌과 동시에 한기락의 불안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것은 그동안 추진하고 집행해온 사업에 대하여 비전문가의 평가일 것이다. 그 하나는 사업의 방대함과 외형적인 면만을 보고 극찬하는 것, 두번째는 이 분야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무조건 불신하는 것이다. 부실공사를 한 여러 토목공사의 예에서 보듯이 사업 진행에서의 정확한 기록, 전문가에 의한 사업내역의 정확한 평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것을 거울삼아 사업의 진행에 대한 정확한 기록 보존과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항공기의 감항성 검토, 인공위성의 발사장치에 대한 신뢰성 검토 등과 같은 평가방법의 도입 내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새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개발과 관련해서 이 문제의 해결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나의 대학교수로서의 생활은 교수수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담당과목도 3,4년마다 바꾸어야 할 정도로 많은 과목을 담당했다. 이와같이 많은 과목을 담당하게 된 이유는 초기 대학교육의 정부지원이 부실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조건하에서 학생을 지도

이강력

許程 보건대학원교수

기분좋게 사는 게 최고



소백산 정상에서 부인과 함께

나이를 먹으면 옛 생각이 자주 난다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도 환갑을 넘기고 보니 30~40년 전의 옛날이 그리워질 때가 많다.

살기 어려웠던 탓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의학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영양실조에 한두가지 병은 다 가지고 사는 환자들이었다. 기침을 할 때면 폐결핵에 걸려있어 각혈을 하는 사람들이 흔했다.

이젠 세상이 달라졌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지성인으로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건강해야 대접받아

이제는 필자도 건강에 꽤 신경을 쓰고 산다. 일주일에 한번은 등산을 하고 3~4회쯤 수영을 해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시골의 냇가에서 미역 감으며 배운 솜씨라 제대로 하진 못하지만 20분쯤이면 6백~6백50미터는 수영을 할 수 있다. 더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수영을 하면 나이를 먹을

수록 생겨나기 쉬운 관절의 부조화나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다.

멀리 산행을 하지 않는 한 대개 도봉산에 간다. 19번 버스 종점인 도봉산 원지에서 시작해 기분이 나면 천축사 입구에서 포대능선을 거쳐 우이동으로 내려오지만 대개는 천축사를 거쳐 관음암을 둘러 우이능선을 따라 내려온다. 위험한 코스도 없거니와 약속터가 많아서 거의 20년 가까이 다니고 있다.

해물탕에 소주 한잔

산에서는 준비해간 밥과 우유 그리고 과일만 먹는다. 하산해서 학생들과 함께 기분이 나면 한달에 한번쯤 부대고기 찌거나 해물탕을 곁들인 소주를 마신다. 평상시에도 무료한 시간을 갖지 않도록 일을 찾아 살고 있다.

역시 나이를 먹으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열심히 기분 좋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건강관리법이라 생각한다.

동문찾아서

주택은행장 박鍾奭동문

“보다 나은 서비스로 21세기 초일류은행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택은행의 박鍾奭(61년 商大入·69년卒)행장을 만나 소감을 들어보았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과 소감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고객만족 중심의 경영혁신과 업무재설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향후 주택은행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21세기 초일류은행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택은행의 오늘을 있게 한 고객들과 임직원, 그리고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은행의 상품은 예금이나 대출이 아닌 서비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과 함께 고객만족운동을 추진하고, 「무전표 제도」를 비롯하여 영업환경을 고객위주로 혁신했으며, 고객을 우선하는 직원의식 정착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조직구조를 능력·능률위주로 개편했으며, 「신세대위원회」, 「주은신문고 제도」 등을 통해 개방적인 경영환경을 조성코자 했습니다』

—취임이후 매년 히트상품을 내놓았는데, 동문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주택은행은 세분화된 고객층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활



발한 신상품 개발활동을 벌여 왔으며, 그만큼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유소년기의 자녀를 가진 동문에게는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을, 직장예금에 가입한 2, 30대 동문에게는 「신재형저축」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활동적인 중년을 보내고 있는 동문들에게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만수무강통장」을 권하고 싶습니다』

—향후 주택은행의 운영 및 발전계획에 대해서...

『주택은행의 21세기 비전은 「복지관련 종합서비스은행」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은행 민

간자본확대, 민영화적응, 금융전업군 최우수은행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전략경영계획 「비전2003」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가장 높은 은행」, 「고객에게 가장 좋은 은행」, 나아가 「사회기여가 가장 많은 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영혁신사업과 고객만족운동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나의 건강관리」란에 소개될 정도로 등산을 즐겨하는 박동문은 지방의 지점을 돌아볼때마다 그곳 직원들과 함께 산을 찾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귀뜸. (變)



본의 아니게 출판에 투신

朴孟浩(57년 文理大卒)「민음사」대표

어느 정도 세상에 몸을 뒹군 이라면 세월은 유수 같다는 말에 체험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시기는 다들 각각 다르겠지만 이를 느끼기 전과 느낀 이후 그 사람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말이다. 내가 그간 30년 남짓 출판을 통해 이룩한 일이란 사람들보다 더 빨리 흘러지는 말을, 말보다도 더 빨리 흘러가는 생각을 우리 곁에 머무르게 하고자 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유수같은 세월에서 건져올린 촘촘한 문장을 엮은 책들 앞에서 나는 이 말을 누구보다도 짙은 감회로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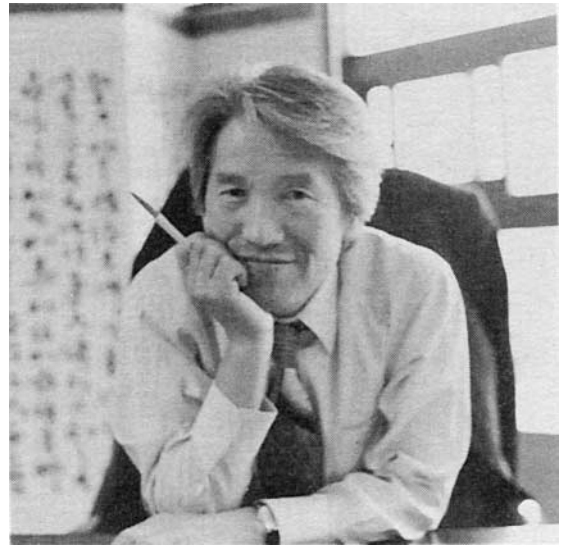
작가되기를 원했지만...

비단 나뿐만은 아니겠지만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세계를 선택할 때 그리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울창한 나무들이 산에 있는 줄은 뻔히 알지만 우리가 나무 이름을 알아볼 때 막상 두서너개에서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마는 것처럼 수많은 가능성이 나의 패기를 북돋워주는 듯했지만 실상은 나의 앞길이 의외로 협소하다는 현실의 고통

스런 확인뿐이었다. 당시 나는 오랜 가업을 잇는 것과는 달리 작가가 되길 열망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아 많은 고민 끝에 출판에 투신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당대의 필자들과 만나

그때 우리 출판은 그 어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였다. 그야말로 황무지라고나 할까. 전집류를 중심으로 한 출판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출판의 꽃이라 할 일반 단행본의 저자들은 독자를 만날 기회를 잃고 있었다. 때문에 각고의 정성으로 태어나 두고두고 읽혀져야 할 우리 시대의 정신적 자산이 함부로 방기되는 한심하고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사정이 그러할수록 이 땅에는 새로운 사상과 지식에 대한 갈증이 더욱 치열함을 피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상황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였을 때, 나는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를 오히려 용기의 원천으로 삼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리하여



비운 뒤 죽순처럼 열정과 패기로 넘쳐나는 당대의 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출판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갔던 것이다.

이제 나는 우리 출판사가 발굴한 젊은 작가들이 여전히 싱싱함을 잃지 않은 채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도 실상 조그마한 일에 불과하다. 오늘 나와 생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에 만분의 일이나마 지적 자양분을 공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나를 은근히 흥분시키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권유때문에

朴忍洙(68년 音大卒)모교 성악과교수



일 목사님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만 해도 음악하면 배고픈 직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사회통념이었지만 부모님도 반대하시지는 않으셨고 나 또한 순전히 음악이 좋아서 택한 길이었다.

피로연에서 영양보충

성악을 하려면 배에 기름기가 돌고 잘 먹어 체중도 좀 나가야 한다기에 궁리 끝에 친구와 함께 남의 집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 영양보충을 하기도 했다. 봄·가을 두 계절에 한 40, 50번 정도 주로 종로에 있는 태화관과 반도 호텔 옆 대려도라는 중국음식점이 단골집이었다.

군입대, 제대, 결혼, 대학졸업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작한 미국유학생활은 온통 고생투성이였다. 아내(安善福)는 원래 플루트를 전공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음악적인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나고 대성할 자질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느라 자기의 길을 가지 못했다. 지금은 성악으로 전환해 좋은 선생님이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어 모든 것이 아내의 운명이라니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쨌든 나로 인한 결과이므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음악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장 자크 루소의 말을 참으로 이해하기에 힘쓰겠다. 또 살리아핀과 라흐마니노프의 「톨스토이 방문기」에서 톨스토이가 라흐마니노프의 베토벤 피아노 연주를 듣고 나서 던진 『그런 종류의 음악이 참으로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깊이깊이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나의 음악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만이 살 길

鄭圭東(75년 工大卒)삼보컴퓨터 상무



세월은 정말 빨라 학교 졸업후 컴퓨터와 인연을 맺은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현대그룹까지의 전반 10년은 컴퓨터 활용 분야에 일한 기간으로, 삼보컴퓨터의 후반 10년은 컴퓨터 제조 분야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밤샘끝에 맛보는 희열

컴퓨터 활용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크게 어렵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 당시 환경과 기술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목표를 세워 놓고 일을 추진한 프로젝트도 몇개 있었다. 실패시 잘못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 일이나 컴퓨터 시스템이 계획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회사 전체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책임을 떠나 회사의 다른 동료들이 겪을 어려움, 회사가 입을 막대한 손실과 신뢰의 실추를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번의 실패 없이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어서 큰 다행이었다.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수많은 날을 해결책과 씨름하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 회사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 하는 것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새로운 일에 뛰어들 수 있었다.

지금은 마케팅과 연구소 부문의 일을 맡고 있는데 과거의 많은 경험의 의사결정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나 컴퓨터 부문의 기술발전과 환경변화가 워낙 빨라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 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 그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경제가 개방화, 세계화 되면서 컴퓨터 부문에서는 세계 최강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도전적 과제에 틀림없다.

세계 최강 아니면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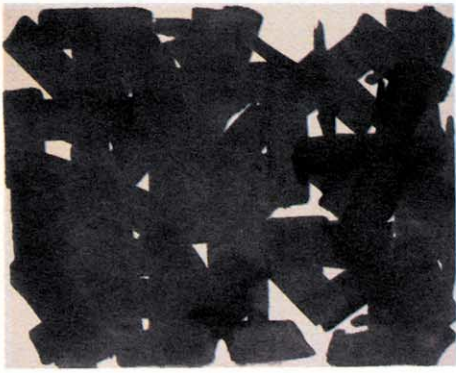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를 잃지 않고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으로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시급한 과제로서 정보화 사회의 구축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 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컴퓨터와의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그 인연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꾸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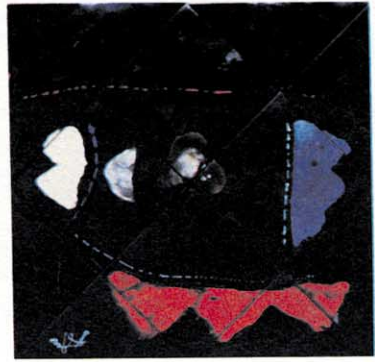
고교때 꿈은 마도로스

고등학교 때의 꿈은 마도로스가 되는 것이었다. 줄무늬셔츠에 파이프를 물고 모자를 쓴 영화 속의 마도로스가 너무나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마도로스의 꿈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에 들어선 것은 고등학교 3학년때 교회의 부흥목사로 오신 김창



▲辛永常 律, 닥지에 수묵, 132 × 162cm



▲李鍾祥 원형상941119-영원한 마을, 동유화, 94 × 94cm



▲金靜子 Mountain, 종이에 아크릴릭, 92.5 × 96cm



▲章洙弘 由紋知形鉢, 점토, 62 × 23 ×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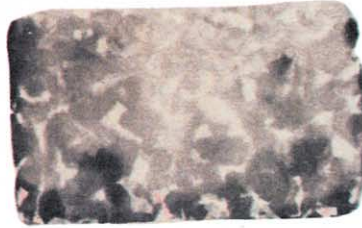
▲金炳宗 생명의 노래-숲에서, 한지, 먹, 채색, 116 × 17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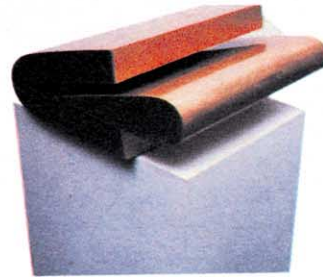
▲全 駿 소리,銅, 40 × 28 × 6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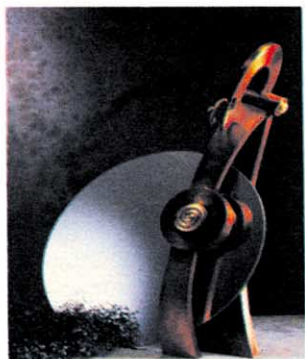
▲徐庸宣 청령포, 캔버스에 유채, 116.5 × 91cm



▲鄭聲永 잊혀진 것들-42, 한지, 먹, 담채, 120 × 180cm



▲嚴泰丁 95 무제,銅, 55 × 18 × 56cm



▲徐道植 태양의 언덕,赤銅, 금박입힌 나무, 75 × 30 × 78cm



▲姜燦均 큰 우물, 황동, 청은, 110 × 74 × 290cm



▲韓雲晟 연못 II, 종이에 아크릴릭, 156 × 61cm

〈紙上 감상〉

미술대학 발

교수

미술대학은 오는 11일
현대미술 전시실에서 현대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전
본회가 후원하는 이번
체부분의 26점을 미리 차



▲崔鍾泰 연못, 110 × 74 × 290cm

작품전기금 조성

작품전

부터 20일까지 모교 박물관
익교수·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전에 출품된 평면, 입
면을 통해 전시한다.



▲尹明老 익명의 땅 95-VIII,
유채 아크릴릭, 100 × 100cm



▲權純亨 自然, 瓶, 33.5 × 38cm



▲辛光錫 自然-陰陽, 점토+알루미늄, 42 × 11 × 50cm



▲丁昌燮 默考 NO.95501, 면천위에 닥, 130.3 × 162.1cm



▲金敎滿 민속을 주제로한 Illustration,
컴퓨터그래픽, 60 × 90cm



▲崔仁壽 먼곳으로부터 오는 소리, 주철, 225 × 3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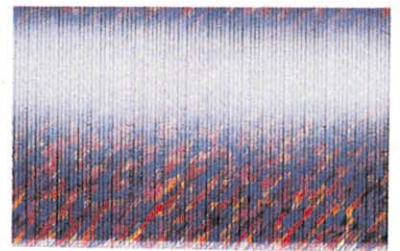
▶劉里知 여름밤-하늘, 철, 50 × 75 × 4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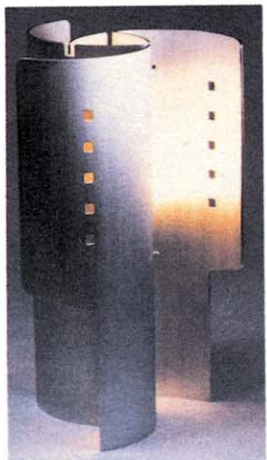
▲金 泰 화실의 정물III, 캔버스에 유채, 117 × 1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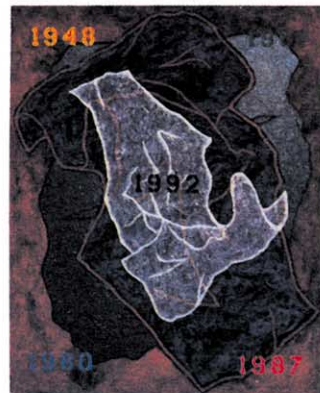
▲崔義淳 빛, 석고, 100 × 45 × 83cm



▲河東哲 바람 94-17, 캔버스에 아크릴릭, 120 × 180
cm



▲閔哲泓 旋, 알루미늄, H-75cm



▲尹東天 구겨진 양심들, 캔버스에 혼합재료, 130 × 160cm



▲崔滿麟 작품O.95-11-01, 청동, 42 × 12 × 37cm

동정

수상

- ▲任哲宰(30년) 京城帝大卒·모교 명예교수)= 9월12일 제9회 「仁村賞」(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 ▲權相澈(35년) 師大卒·前안양전문대교수·本會理事)= 최근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 ▲尹能民(51년) 文理大卒·서강대 명예교수)= 9월12일 제9회 「仁村賞」(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 시상식은 10월12일 오후3시 동아일보 18층 강당에서 거행된다.
- ▲曹祥鉉(51년) 音大卒·SMC서울무지클럽회장·本會理事)= 9월12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40회 대한민국예술원상(음악부문)을 수상했다.
- ▲洪性文(54년) 美大卒·영남대교수·本會理事)= 최근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 ▲金相勳(54년) 師大卒·경희호텔경영전문대교수)= 최근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 ▲金正律(55년) 師大卒·대구교대교수)= 최근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

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白明基(55년) 師大卒·충남대교수)= 최근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동·선임

- ▲盧寬澤(55년) 醫大卒·前모교병원장·本會理事)= 9월1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제5대 한림대 의료원장에 취임했다.
- ▲朴瑩洙(56년) 法大卒·前한국기술금융회장)= 최근 광주은행 37기 임시주총에서 제6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됐다.
- ▲柳赫仁(57년) 文理大卒·유선방송위원장·本會理事)= 9월12일 열린 제42차 임시회의에서 차기 위원장에 재선임됐다.
- ▲金 憲(58년) 法大卒·前부총리겸 통일원장관)= 9월5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서울평화상」 이사회에서 위원장에 선임됐다.
- ▲魚允培(58년) 法大卒·숭실대교수)= 9월5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국제협의회(ICSB)회장에 취임했다.
- ▲孫世一(59년) 文理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 9월8일자로

국민회의 정책의장에 임명됐다.

▲鄭萬在(59년) 農大卒·충북대교수·本會理事)= 8월21일 충청북도 의회에서 충북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당선됐다.

▲曹章煥(60년) 農大卒·단국대교수·本會理事)= 최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부총장에 취임했다.

▲崔圭永(60년) 法大卒·한국해운조합이사장·本會理事)= 최근 同會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제14대 이사회장에 연임됐다.

▲朴仁邱(61년) 商大卒·환영철강공업전무·本會理事)= 최근 同社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李景載(61년) 商大卒·前한국은행이사·本會理事)= 최근 한국은행 신입감사에 임명됐다.

▲林賢燮(61년) 商大卒·조흥은행연수원장·本會理事)= 최근 조흥은행 강동본부 본부장으로 전보.

▲李康淑(61년) 音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교장·本會理事)= 최근 예술의전당 비상임이사에 선임됐다.

▲金斗禧(62년) 法大卒·前법무부장관·本會理事)=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9 이 건산업빌딩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金演祚(62년) 商大卒·前외환신용카드회장·本會理事)= 최근 중앙투자금융 신입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崔光哲(62년) 齒大卒·치과원장)= 9월1일자로 제7기 민주평통자문회의 평통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사회복지분과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南在祐(63년) 法大卒·前라전모방대표이사)= 지난 8월7일 경기도 부지사(정무담당)로 영전했다.

▲張應水(63년) 法大卒·변호사)= 9월1일자로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郭秀一(63년) 商大卒·모교교수)= 최근 예술의전당 비상임이사에 선임됐다.

▲金相培(63년) 商大卒·前서진상업상무·本會理事)= 최근 서진대금(서진다이킨)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趙舜衡(64년) 法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 9월8일자로 국민회의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琴承鎬(64년) 師大卒·前충남대사무국장)= 최근 교육부 대학교육지원국장에 임명됐다.

▲沈享鎭(65년) 工大卒·前대한제강전무)= 9월14일 동부산업사업본부 부사장에 선임됐다.

▲金元泰(65년) 法大卒·前한국은행자금부장·本會理事)= 최근 한국은행 이사로 승진했다.

▲朴京相(65년) 商大卒·前국제조세조정관·本會理事)= 9월14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洪文信(65년) 商大卒·前한국



감정원장·本會理事)= 9월15일 대한재보험신임 사장에 선임됐다.

▲金起秀(65년) 司大院卒·서울고검장·本會理事)= 9월16일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李廷甫(66년) 商大卒·前관세청차장)= 9월7일자로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

▲李文圭(67년) 文理大卒·前삼회투금전무)= 최근 삼삼투자금융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鄭昌鉉(67년) 師大卒·前한국교원대교수·本會理事)= 9월6일 중등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朴紀正(68년) 文理大卒·前동아일보편집부국장·本會論說委員)= 최근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黃圭政(68년) 文理大卒·前駐英公사)= 9월1일자로駐英公사로 임명됐다.

▲文 雄(68년) 獸醫大卒·前녹십자해외지점장)= 9월1일자로 가공업의 세제류와 화장품 수출하고 있는 (주)그린원 전무이사에 선임됐다.

▲李光鎭(68년) 醫大卒·충남대부속병원)= 최근 법인으로 전환한 충남대병원 원장에 취임했다.

▲高賢哲(69년) 法大卒·前서울고법부장판사·本會理事)= 최근 신설된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에 임명됐다.

▲高光浩(69년) 藥大卒·모교교수)= 지난 8월6일 모교 종합약학연구소장에 취임했다.

▲張正訓(69년) 藥大卒·前한국안센 극동아시아담당부사장)=

최근 안센그룹 아시아담당부사장으로 영전.

▲辛基夏(70년 司大院卒·국회의원·本會理事)= 9월8일자로 국회의원회의 원내총무에 임명됐다.

▲李濟薰(71년 新大院卒·前중앙일보이사·新大院同窓會長)= 최근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曹圭楠(76년 工大卒·홍익대교수)= 9월1

일자로 홍익대학교 해양시스템 연구 센터 소장에 임명됐다.

▲裴燦福(79년 大學院卒·명지대교수)= 최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교육학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全晟喜(83년 法大卒·변호사)= 최근 대전지법 판사로 신규 임용됐다.

▲李 哲(88년 社會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 9월8일 민주당 원내총무에 임명됐다.

행사·출간

▲李大源(45년 法大卒·예술원 회장)= 9월12일 예술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40회 대한민국 예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金在中(53년 工大卒·선문대학교 공대학장)= 10월12일부터 프랑스 Lyon에서 개최되는 제3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석차 국제심사위원 32명을 인솔하고 2일 출국.

▲洪性文(54년 美大卒·영남대학교수·本會理事)=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벽화 갤러리에서 「時와 조각의 자리」를 마련했다.

▲申東完(54년 農大卒·충남대학교수·本會理事)= 한국과 중국의 농업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과 함께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농업기술비교연구를 위한 1차 현지조사활동을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本會理事)= 9월27일 하얏트호텔 2층 로터스룸에서 朴煥植교육부장관을 초청, 「교육개혁의 이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鄭東華(57년 師大卒·인천교대총장·本會理事)= 최근 同校 체육관 완공식을 갖고 초등교육 개선 방향을 위한

교사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尹銘重(57년 文理大卒·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本會理事)= 9월15일 여의도 63빌딩 별관3층 글로리아홀에서 趙 淳서울시장을 초청, 「민선 서울시장의 市政 구상」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許 程(57년 醫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9월1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성인병 진단과 예방」이라는 주제로 주부교양공개강좌를 개최했다.

▲金昌悅(58년 法大卒·방송위원회위원장·本會理事)= 최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무궁화 재벌배분 및

운동」을 주제로 위성방송연구위원회 종합토론회를 개최.

▲俞東濬(60년 農大卒·수원북중총동창회장·本會理事)= 9월

26일 수원 하이웨이백화점 대회의실에서 개교45주년을 맞아 「자랑스런 북중인」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기초·광역의원을 초청, 「북중인의 만남」을 개최.

▲崔秉烈(64년 法大卒·前서울시장·本會副會長)= 9월13일 조선호텔 자스민룸에서 카네기클럽 주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 참석, 「리더쉽과 조직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申英一(65년 商大卒·西光사장)= 9월4일 호텔롯데에서 올가을부터 라이선스 판매하는 프랑스 신사복 「랑방」의 출범식을 가졌다.

▲趙由典(66년 文理大卒·국립민속박물관장)= 9월13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월간 「민속소식」 창간기념식을 가졌다.

▲黃斗英(69년 行大院卒·한국새마을금고회장·本會理事)= 9월13일 동창회관 4층 서라벌에서 申大淳경희대학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사무국장·本會理事)= 9월22일부터 29일까지 대한언론인회 제1차 해외연수시찰단 일원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4개국을 순방.

▲李崇源(77년 師大卒·서울여대교수)= 최근 세번째 문학평론집 「현대시와 지상의 꿈」(시와 시학사刊)을 出刊.

(정리=金志妍기자)

독심자공로대훈장 받아

李文鎬동문



峨山재단 상임고문인李文鎬(46년 醫大卒)동문(사진 가운데)이 지난 8월29일 주한독일 대사관저에서 디터지메스 독일대사(사진 左)로부터 독일정부가 수여하는 십자공로대훈장을 전달받았다. 십자공로대훈장은 정치인

을 제외한 학자, 경제인 등 민간인에게 주는 독일정부 최고훈장으로서 李동문은 40여년간 한독의학회장, 한독협회 간사, 홈볼트장학클럽회장, 리하르트분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양국관계 증진과 발전에 기여해왔다.

우라늄협회 금메달 수상

李宗勳동문



李宗勳(57년 工大卒)한국전력사장(사진 左)은 지난달 8일 런던에서 열린 우라늄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한 공로로 同會 아이안병칸의장(사진 右)으로부터 금메달을 수상했다.

원전원료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5년 창립된 우라늄협회는 세계 전력회사와 원전연료 공급자 등 총21개국의 80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지난 85년부터 2년마다 공로자를 선정해 금메달을 수여해왔다.

(志)

커버스토리

17명 교수, 석별의 정 나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金榮國 교수
사회대·정치학

모교정치학과 정년교수1호

金교수는 1930년 인천 출생으로 54년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 72년 모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58년에 28세의 나이로 모교에 부임한 金교수는 대학신문 편집국장, 학생처장, 사회과학대학장, 현대사상연구회장, 정치학회장, 대학원장, 부총장등을 역임하며 후학양성과 정치사상연구에 몰두, 국내 관련학계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이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한 金교수는 서울대동창회보 창간(76년 4월24일)의 주역으로서 현재 상임논설위원으로 동창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31일 모교 문화관에서 李賢宰·金鍾云전임총장, 李壽成총장, 鮮于仲皓부총장, 金完鎭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정년퇴임식이 거행됐다.

尹桂燮교무처장의 정년퇴임교수 약력소개에 이어 훈장·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李壽成장은 송별사를 통해 『열악한 연구조건에서도 수많은 인재를 키워내 모교를 빛내주셨다』며 『부디 앞으로도 명예교수로서 후진들을 가르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鄭厚燮교수는 퇴임교수대표로 고별사에서 『이제 비록 대학을 떠나지만 그동안 학교로부터 입은 무한의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본회에서는 학문연구와 후학육성에 반평생을 바쳐온 교수 17명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동창회보를 통해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金濟秘 교수
자연대·수학

학문연구와 후진양성 몰두

金교수는 1930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59년 문리대 수학과를 졸업, 61년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金교수는 63년부터 모교에 재직해오면서 30여년간 오로지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만 힘써왔다. 이러한 학문적 업적으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金교수는 관련학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金교수의 제자들은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펴 낸 논문집에서 『학자로서 주옥같은 논문을 쓰고, 선생으로서 여러 제자들의 앞길을 밝혀주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원자핵분야 초석다져

1930년 서울 출생인 朴교수는 49년 문리대 물리학과에 입학, 57년에 졸업했다.

64년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핵물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IAEA핵자료센터에서 연구해왔으며 공군사관학교 기술장교로 기상관계 소령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71년 모교 원자핵공학과에 부임한 朴교수는 응용핵물리, 원자핵물리실험등을 강의함으로써 당시 미개척 분야였던 원자핵분야 발전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朴교수는 「10년 근속표창」, 「20년 공로표창」을 받은 바 있다.



朴惠一 교수
공대·원자핵공학



金鎬澈 교수
자연대·화학

양자화학분야 연구에 정진

1930년 서울에서 출생한 金교수는 49년 문리대 화학과에 입학, 군복무를 거쳐 57년 졸업했다. 이어 65년 미존스홉킨스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에 부임한 金교수는 자연과학종합연구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양자화학분야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외 6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등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겼다.

金교수는 『동료, 후배의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일을 못하고 현역교수일을 마치게 된 것이 아쉽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세계전기전자학회 정회원

安교수는 1930년 서울 출생으로 57년 공대 통신공학과를 졸업, 74년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安교수는 69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통신분야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인공위성 지상추적국 CNE2002호의 회로 및 시스템 부분을 연구·개발하는등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겼으며 세계전기전자학회(IEEE) 한국회장, 음향학회장, 음성언어처리관계자한국협회 의장, IEEE사무총장등을 역임했다. 기초전자공학, 한글과 한자(공저)등의 저서를 남긴 安교수는 전기학회·전자공학회·음향학회 학술상,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安秀桔 교수
공대·전자공학



金淵植 교수
공대·금속공학

제련분야 많은 논문 남겨

金교수는 1930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 56년 공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59년 미미네소타대학 석사과정을 거쳐 69년 런던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63년 모교에 부임해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전념, 그동안 금속공학 제련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철강·금속제련분야의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겨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금속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金교수는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금속학회 학술상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식물병리·균학분야 개척

1930년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한 鄭교수는 54년 농대 농생물학과를 졸업, 67년 미미네소타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57년 모교에 부임했다.

식물병리학을 전공한 鄭교수는 농업개발연구소장, 한국식물보호학회장, 한국균학회장등을 역임했으며 국제식물병리학회 이사, 국제균학회집행위원 및 아시아균학회 위원장등으로 활동하면서 식물병리 및 균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다. 국민훈장 동백장, 성지학술상,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등을 수상한 鄭교수는 현재 학술원 회원으로 있다.



鄭厚燮 교수
농생대·농생물학



申熙明교수
사대·물리교육

국민과학 영재육성에 공헌

申교수는 1930년 함남 함흥에서 출생, 54년 사대를 졸업한 후 66년 미워스콘신대학에서 물리교육학 석사, 81년 건국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62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과학교육의 이론정립과 물리학 연구에 이바지해온 申교수의 공로는 많은 후학들에게 초창기 물리교육의 산 역사로서 길이 남을 것이다.

사범대학부설 과학교육연구소장을 역임하고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기도 한 申교수는 최근 국제물리올림피아드위원장으로 취임해 국민과학 영재육성에 공헌하고 있다.



趙忠鎬교수
수의대·수의학

수의학 교육·연구에 진력

1930년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한 趙교수는 53년 수의대를 졸업, 70년 충남대학 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에 부임해 대한수의학회장을 역임하면서 수의학 발전에 진력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趙교수는 수의과 학보인 「백림」을 양성화하여 93년에 학생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으며 재임중에는 농생대 학생과장, 동물병원장, 수의과대학장등을 역임했다.

趙교수는 『수의학 고서 전시회와 수의학박물관 건립 등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鄭源根교수
약대·약학

신약개발 활성화시켜

鄭교수는 1930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 54년 약대를 졸업하고 69년 모교 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2년 약대에 부임해 후학양성과 약품화학 분야 연구에 몰두해 온 鄭교수는 재임중에 약대부설 종합약학연구소장, 신약개발 연구센터소장, 약학대학장등을 역임하는등 약학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했다.

鄭교수는 후학들에게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서울대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 신약개발 연구센터의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金容振교수
음대·작곡

열악한 예술교육환경 개선

1930년 충남 대전에서 출생한 金교수는 57년 음대 작곡과를 졸업한 후 69년에 미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70년에 음대에 부임한 이래 음대학장을 지내면서 당시 열악했던 예술교육환경을 개선하는등 대학의 교육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아시아작곡연맹 부회장, 창악회장, 한국음악대학장협회장을 역임하면서 현대음악 발전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국민훈장 석류장, 대한민국 작곡상등을 수상한 金교수는 『아직은 소홀히 취급받는 예술계에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金勝煥교수
의대·의학

산부인과학 발전에 힘써

金교수는 1930년 서울에서 출생, 56년 의대를 졸업하고 73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金교수는 국내의 외산 의학분야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의대학장, 대한주산의학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장, 대한태아학회회장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산부인과학의 발전에 매진해왔다.

金교수는 『아직도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라는 일류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초일류를 지향하며 한걸음 매진해야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학 진료에 매진

1930년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 56년 의대를 졸업하고 63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2년 모교에 부임한 이후 보건진료소장을 지낸 6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교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등을 역임하면서 이비인후과학 분야의 진료에 매진해왔다. 이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金교수는 최근 국제편도학회 차기회장에 선출돼 제5회 국제회의를 서울에 유치하는데 성공하는등 관련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金鎭永교수
의대·의학

국내외 의학발전에 기여

盧교수는 1930년 경남 울산에서 출생, 55년 의대를 졸업한 후 64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3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현재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의학협회 부회장, 아시아태평양 이비인후과연합회 이사장, 한불의학회장, 모교 제8대 병원장등으로 활동해왔다.

『이제 진짜 사회에 나가는가 하는 생각이 마치 졸업반 학생들의 심정 같다』는 盧교수는 각자가 참다운 주인의식을 갖고 어려울때 앞장설 수 있어야 모교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盧寬澤교수
의대·의학

국내 녹내장연구의 체계화

1930년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 54년 의대를 졸업한 후 65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안과학을 전공한 尹교수는 64년 의대에 부임해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및 한국녹내장연구회장, 보라매병원장등을 역임했으며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바 있다.

77년 미워싱턴대학에서 녹내장을 연구한 후 세계적 학술지인 「안과학 코리아 저널」을 창간하고 국내외 녹내장연구를 체계화시킨 尹교수는 정년퇴임후에도 의사로서 계속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尹東浩교수
의대·의학

국내 치과보존학의 권위자

李교수는 1930년 경기도 김포 출생으로 57년 치대를 졸업, 68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6년 모교에 부임한 후 치과보존학에 대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으며 진료과장, 대한치과보존학회장등을 역임하면서 치과보존학의 기반 구축과 발전에 공헌했다.

『의사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환자를 가족같이 치료해 괴로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李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교육에 이바지한 공적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어 기리 빛날 것이다.



李鳴鍾교수
치대·치의학

구강악안면외과학의 1인자

1930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 56년 치대를 졸업하고 67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구강악안면외과학을 전공한 閔교수는 67년 치대에 부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대한구강외과학회 부회장,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장등을 역임하며 교육과 학문연구, 의료활동에 주력해왔다.

구강악안면외과의 외길을 걸어왔다는 閔교수는 외도없이 매진해온 것에 대해 후회가 없다며 후학들에게 만물박사이기를 원하기보다 자기분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閔丙一교수
치대·치의학

모교소식

자연대 학부로 통합모집 내년부터 공대 5개군으로

모교는 지난 14일 학장회의를 열고 내년 입시부터 자연대를 단일학부로 통합, 신입생을 학과구별없이 선발(단 의·치의 예과는 예외)하기로 했으며 공대의 경우 자원공학과, 토목공학과 토목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등 3개 모집단위를 도시·자원·토목공학과군으로 통합해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입시에서 학

부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곳은 자연과학대 학부와 공대 5개학부(전기공학부, 공업화학·섬유고분자·화학공학과군, 재료공학부,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과군, 도시·자원·토목공학과군), 사회대 경제학부 등 모두 7개 학부다.

한편 인문대의 경우 97년부터 학부제로 신입생을 모집할 방침이다.

동창회 총회원 21만5천2백31명

9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말 각 단과대학(원)별로 거행돼 동창회는 1천1백18명(학사 4백80명, 석사 3백19명, 박사 3백19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명단 24

면 참조)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수는 21만5천2백31명(준회원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단과대학(원) 별 회원현황

(단위 명)

구 분	8월졸업	총회원	구 분	8월졸업	총회원
인 문 대 학	63	6,213	음 악 대 학	15	5,114
사회과학대학	83	7,854	의 과 대 학	-	8,549
자연과학대학	36	6,244	치 과 대 학	-	4,695
가 정 대 학	6	2,457	대 학 원	559	44,044
간 호 대 학	-	2,550	경 영 대 학 원	-	701
경 영 대 학	30	3,547	교 육 대 학 원	-	653
공 과 대 학	56	27,821	보 건 대 학 원	31	1,986
농업생명대학	64	15,315	사 법 대 학 원	-	508
문 리 과 대 학	-	9,731	신 문 대 학 원	-	264
미 술 대 학	11	3,480	행 정 대 학 원	19	3,163
법 과 대 학	59	12,370	환 경 대 학 원	29	1,242
사 법 대 학	54	20,120	소 계	1,118	201,893
상 과 대 학	-	6,723	준 회 원		13,338
수 의 과 대 학	3	1,559	총 계		215,231
약 학 대 학	-	4,990			



洪羅喜동문이 李忠장과 약정서 전달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

현대식미술관 건립기증 50억 들여 내년말 완공

삼성문화재단(이사장 李健熙·삼성회장)은 96년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에 미술관을 건립, 기증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모교 李壽成총장, 李健熙이사장의 부인 洪羅喜(67년 美大卒)동문,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실에서 건립기증 약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50억원 상당의 이 미술관은

개교 50주년이 되는 96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며 연건평 2천평 규모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등을 갖춘 초현대식으로 지어진다.

이번 미술관 건립기증은 삼성문화재단이 창립 30주년과 「미술의 해」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결정한 것으로 모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대학

교수작품전 열어 발전기금조성

미술대학(학장 崔滿麟)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박물관 현대미술 전시실에서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본회가 후원하는 이번 작품전에는 현직교수 및 명예교수의 회화, 조각, 공예부문의 소중한 작품 26점(사진 10면 참조)이 출품된다.

동문 및 미술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란다.

박물관

수요일에 교양강좌

박물관(관장 崔夢龍)은 2학기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시민과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요교양강좌」를 실시한다.

18일은 한국 신석기시대 문화, 25일은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문화를 강의한다. (연락처 880-5333)

해태그룹

치대에 6억 출연

해태그룹(회장 朴健培)이 최근 모교 치과대학(학장 金光男)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3년에 걸쳐 총 6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6월 1사분으로 2억원을 기증했다.

金학장은 「이 기금으로 사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다운 연구활동과 교수들의 해외연수,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인력확보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임 인문대학장

成百仁교수 취임

지난 9월1일자로 신임 인문대학장에 언어학과 成百仁(56년 文理大卒)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成학장은 82년 모교에 부임한 후 언어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모교 박물관장에 고고미술사학과 崔夢龍(68년 文理大卒)교수, 법학연구소장에 사법학과 李好琰(58년 法大卒)교수, 중앙교육연구전산원장에 화학과 申桓澈(72년 文理大卒)교수가 임명됐다.

분당병원 99년 개원

7백병상, 연말 착공

모교 병원(원장 李迎雨)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번지일대 미금전철역 인근 3만7천여평의 의료용지에 분당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핵자기공명장치, CT실 등의 첨단 의료장비를 갖춰 지상 15층 지하 3층 7백병상규모로 건립될 분당병원은 금년말에 착공, 99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變)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 21면 뜨락
- 22면 화제의 동문 문화단신
- 23면 세계의 대학
- 24면 신입회원명단
- 26면 연회비납부자
- 27면 국민카드가입자

제211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10월 1일

[21]

9월회보를 읽고

사회교육기관 소개도...



그동안의 편집내용을 더듬어 보면서 느낀 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모든 출판사가 읽는 책에서 눈으로 보는 책으로 옮겨가듯 참신한 편집의 레이아웃과 사진의 다색화가 지향되기를 바란다. 둘째, 광고면에 할애가 지나쳐 주요내용이 역눌려 회보의 순수성과 품위가 떨어지는 것이 우려된다. 상업성이 지나치게 보여지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면의 시나 그림은 보다 크게 확대하고 작가대상을 10년 이상된 순수한 분으로 선정하기 바란다. 넷째, 사회교육기관의 소개 및 탐방의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

權五善(56년 美大卒)

명문미술학원장

건강정보 실었으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변화도 심하지만 앞날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아는 동문이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알아보면 입원했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경우가 많다. 70대에 접어든 동문중에는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동창회도 이제는 동문들의 복지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됐다. 단계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 동창회보도 동문들의 복지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韓京鎬(67년 經大院卒)

前노정신문편집위원

「동문의 소리」란을 통해 동문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부
전화: 703-5954
FAX: 703-0755



무관심이 부르는 병

1953년에 부산 피난지에서 의예과에 입학했지만 부산 영도다리를 건너 다니면서 도자기공장 뒷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은 경기여고를 다닐때만 해도 「퀴리부인같은 과학자가 되었으면」하는 꿈에 부풀어 열심히 공부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상의 생각도 든다. 서울로 환도한 후에는 동생들이 줄줄이 대학에 진학했고 나는 힘겨운 6년간의 의과대학 공부에 지쳐있었으니, 1959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을 때는 또 다시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일찍 결혼을 하고 네 아이를 낳고 기르다보니 수련과정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는 해서 6년 후배와 함께 마치게 됐다.

자궁암빈도 월등히 높아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일은 우리나라 여성의 자궁암 발생빈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다. 자궁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궁경부암은 모든 암중에서 가장 쉽게 조기진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기진단만 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에 대한 계몽과 대책이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조기검사로 철저히 예방

필자는 1970년부터 20여년간 서울 대학병원 산부인과와 자궁암조기진단센터에 참여하여 수백명의 자궁경부암의 세포학적 진단을 했었지만 그중 많은 환자들은 비교적 생활환경이 좋은 여성들이었다. 필자의 개인의원에서는 아직도 진행된 자궁암 환자를 드물지 않게 만나게 된다.

덴마크나 스웨덴 의사들은 자궁암 환자를 좀처럼 구경할 수가 없다고 한



尹惠淑(59년 醫大卒) 산부인과원장

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20대 이후의 모든 여성들이 조기암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철저히 자궁암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서울대학교에도 많은 여성동문이 배출했으며 그중에는 각계의 전문분야에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자기발전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대단히 흐뭇하다.

진심으로 보람된 자기자신을 만들어가기란 정말 어려운것 같지만 우리 동문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확신한다. 동문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졸필을 놓으려 한다.

베이징 NGO포럼

필자가 참가한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구호로 베이징 교외 화이로우(懷柔)에서 개최된 민간단체 모임인 NGO포럼은 베이징 유엔 제4차 여성회의 개최 5일전인 8월30일부터 10일간 1백80여개국에서 3만여명이 참가한 금세기 최대 규모의 여성축제이자 여성문제 토론의 장이었다.

기존 세계질서의 변화유도

필자는 UN대학이 주최한 「신 기술과 아시아여성고용의 미래」 패널토의에 참가한 외에 오전에는 주로 전체회의장에 참여했고 오후에는 경제 및 통계부문 분과회의에 참여했다.

1천5백석 규모의 전체회의장에서는 통치 및 지배에의 접근문제, 평화 및 인간안보문제,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도전, 보수주의의 등장 그리고 미디어, 문화 및 통신의 문제등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세력을 개괄하고 지역별로 점검했으며 또한 과거 10년간의 수행전략을 상기부문별,

지역별로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의제로 진행됐는데 아웅산 수지여사의 화상강연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여성지도자, 학자 및 여성운동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웅산 수지여사의 강연도

포럼장소에서는 30인 이내의 토론의장에서 5백석 이상의 심포지움등 1백여개의 교실, 회의실, 강당, 텐트등에서 2시간 단위로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하루 5백여개의 발표 및 토론회, 워크숍, 심포지움등이 진행됐다.

개최기간중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 하루 걸러 쏟아지는 폭우, 1950년대 우리나라 환경과 흡사한 숙소, 주민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꺼운 프로그램 책자와 자료 및 일상용품등 심지어 물통까지 들어있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회의장등을 찾아 발바닥이 부르토록 헤매고 눈에 띄이는 자료를 보면 가방이 터져나오도록 주워담고 구입하는 미련



盧美惠(66년 文理大卒)

한국여성개발원부원장

함을 보이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자동차와 냉방등 문명의 이기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반성하게 됐다.

7백여명의 우리나라 참가자들과 곳곳에서 마주치기도 했고 심심찮게 팽과리와 징의 불협화음이 포럼장소에 울려 퍼져서 한국 프로그램이 주위의 눈길을 끌었으며 아태지역 친선센터에서의 프로그램중 사물놀이패의 아리랑은 필자의 눈시울을 젖게 했다.

이번 NGO포럼에서 여성들이 보여준 열기와 힘의 결집속에서 기존의 세계질서의 변화를 유도할만큼 거스를 수 없이 밀려드는 커다란 파도를 감지했다면 이것이 필자만의 느낌이었을까?



崔一玉 남성잡지HIM 발행인

“남자는 여자가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길 수 있을까.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다. 「어른」인 우리는 누가 이겼는지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화속의 해는 벌써 마음 깊은 곳에 접어두고 아예 포기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崔一玉(69년 文理大卒)동문은 지난 9월 창간한 남성잡지 「HIM」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을 줄곧 생각했다고 한다. 「사랑의 힘(HIM, 力)」을 믿는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들에게 자신있게 보일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남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

아가는 여성들이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HIM」은 매달 정해진 하나의 테마속에 모든 기사와 사진, 광고까지 유기적으로 결합, 독자들이 360도의 시각으로 하나의 주제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독특하게 꾸며진다.

잡지는 주말에 누워서도 볼 수 있을만큼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는崔동문은 그러나 결코 가볍게 만들고 유행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HIM은 한 장면이 한 줄의 기사를 대신할 수 있는

강한 임팩트의 사진으로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아 싣고 있습니다. 창간호의 경우 표지사진은 하늘, 인간, 땅이 어우러진 天地人을 상징하고 모델들의 팔을 보면 「M」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지요. 독자들이 무심히 넘기거나 외국의 사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우리 빛깔을 잃지 않고 나가다 보면 곧 알아주시겠지요』

신문, 잡지사 기자로 활동하던崔동문은 사내동기인孫承鎬(66년 文理大卒·중앙출판문화대표)동문과 결혼했다. 하나라도 완벽히 해야한다는 생각에 20년간 전업주부로 독하게(?) 살았지만 애남고 살면서 인내와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지만 살림 툼툴한 글을 써서 지난 86년 단편소설 「문대식씨를 아십니까」로 동서문학신인상, 이듬해 KBS방송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러분들로부터 가끔 부럽다는 소리를 듣는데崔一玉이라는 사람을 알고나면 「그럴만 하다」고 끄덕여주실 겁니다』

먹물 냄새나는 할머니로 잘 늙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람이라는崔동문, 생명과 사랑을 잉태하는 여성의 힘을 실감케 하는 멋진 동문이다. (志)

문화
단신

新刊

■영롱한 색채속에 미술은 밝다

— 盧在又 著



인천교육대학에서 정년을 맞이한 盧在又(55년 美大卒) 동문이 그동안 집필해온 논설·기행문·隨想

등을 모아 정년퇴임기념논문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盧교수와 평소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온 동료, 후배, 제자의 글도 함께 실려있다. (도서출판 국제)

■마음속의 엘리베이터

— 鄭有碩 著



미국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鄭有碩(64년 醫大卒)동문이 미국과 한국의 사회현상을 최

신 심리학의 눈을 통해 분석한 책으로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

달리는 직장인, 주부, 학생등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일보사판·값6천원)

展示

■金孝淑조각전

— 10월8일 21C갤러리

진정한 예술혼을 가진 구도적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金孝淑(67년 美大卒)동문의 조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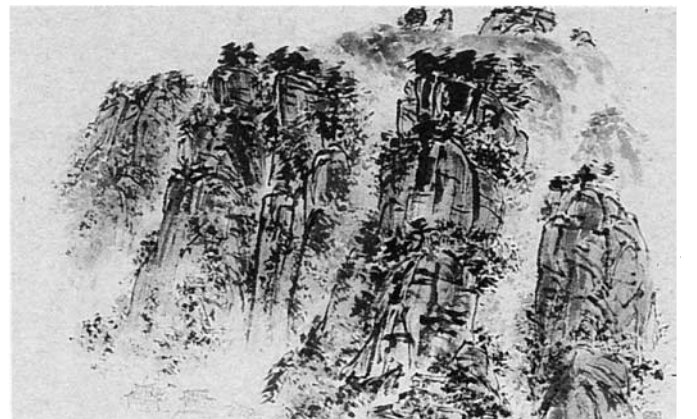
동그라미 연작시리즈, 구도적 인체, 질구이등 수많은 찬사를 받은 주옥같은 작품들이 전시된다.



■權奇允작품전

— 10월10일 수목화랑

안동대 교수로 귀향, 자연의 아름다움 순수한 모습을 화면에 담아낸 權奇允(81년 美大卒)동문의 산수화 작품전.



■白純實·金孝濟작품전 -10월10일 세종갤러리

석판화와 실크스크린의 혼합으로 풍부한 색감과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는 白純實(74년 美大卒)동문과 목판화로 자연과 성서를 바탕으로 한 서정적 추상화를 추구해온 金孝濟(86년 美大卒)동문의 가을 관화작품전.

公演

■하프·플롯의 이중주 -10월19일 문화일보홀

카네기홀과 뉴욕대, 맨하탄 음대등에서 여러차례 독주회를 가졌던 하프리스트 趙敏廷(89년 音大卒)동문이 플루티스트 金인하씨와 함께 보케리니, 생상스, 바르토크의 작품을 연주한다.



■서울하프앙상블 창단연주회 -10월30일 예술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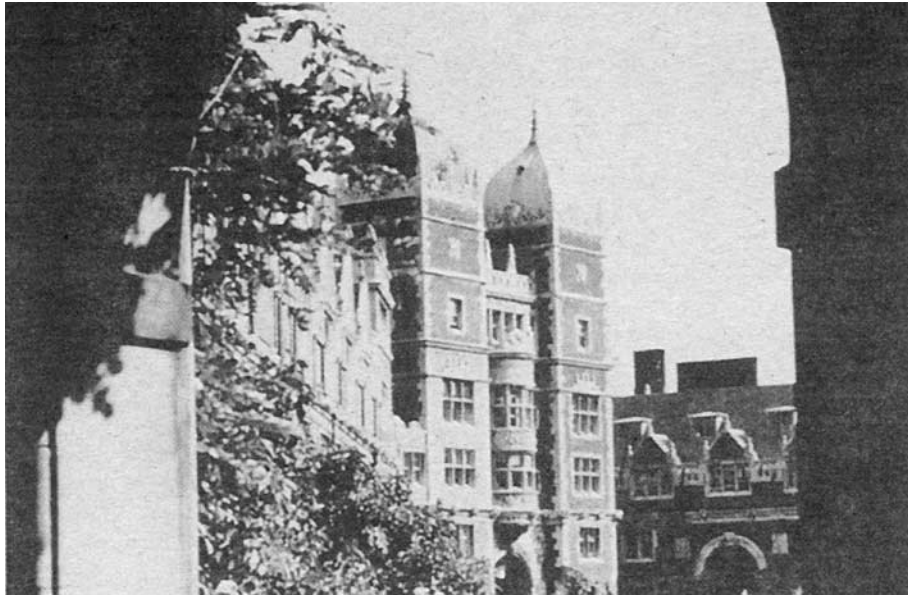
음대 기악과 출신 하프리스트 朴恩正(80년卒), 劉智惠(85년卒), 姜麗珍(88년卒)동문이 하프앙상블을 펼친다. 이날 공연에는 바흐, 드뷔시, 글루크, 헨델의 작품이 연주된다.

(정리=安興變기자)



어린이교육위한 자선학교로 시작

미국 최초 의과대학·비즈니스스쿨 설립



펜실바니아대학의 역사는 미국 독립전인 1740년부터 시작됐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인 1740년부터 시작되는 펜실바니아대학의 역사는 미국 교육의 역사 그 자체이다. 최초에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선학교로 허가받아 어린이를 중심으로 교육하다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1749년에 「펜실바니아에 있어서 청년교육에 관한 제안」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시 공립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同학원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금을 기부, 학원 현장을 채택해 프랭클린을 최초의 이사장으로 선출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펜실바니아대학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1779년에 이르러 최초로 University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현재의 명칭인 「University of Pennsylvania」는 1791년부터 사용되었다. 당시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나 펜실바니아대학이 설립되기 전에는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과정을 가르치는 학

교가 없었다.

각계기부금으로 학교운영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펜실바니아대학의 트러스티와 교수들이 영국 국왕파와 미국파로 나뉘어져 대립하다가 영국 국왕파가 우세해지자 펜실바니아주에서 새로운 Provost와 새 트러스티들을 임명하기도 했으나 전쟁후 종전의 트러스티들이 모두 복귀했다.

펜실바니아대학은 미국초기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몇몇 분야에서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북미대륙에서 최초로 의과대학을 설립했고 최초로 의과대학원을 두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병원과 미국 최초의 식물학과도 펜실바니아대학에 생겼다. 최초의 근대적인 학부교육과정을 만들고 최초의 비즈니스스쿨을 만든 것도 펜실바니아대학이다.

초기에는 여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1880년에 최초로 Mary Alice Bennett가 Ph.D.학위를 받았고 이어서 1881년에는 법과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했으며 1887년에는 대학원에 여학생이 입학했고 1933년에 와서는 마침내 「College of Liberal Arts for Women」이 설립되어 여성들을 위한 대학교육이 본격화됐다.

학교의 운영은 기부금으로 운영해오고 있고 지금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필라델피아 시내서부지역으로 확장, 현재 Chestnut스트리트와 Walnut스트리트 주변으로 수십가에 걸쳐 캠퍼스가 넓혀 있다.

미 법학이론의 기초 완성

1755년에 「College of Arts and Sciences」가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설립돼 현재까지 4년제 학부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1765년에 설립된 의과대학은 현재까지도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부설로 만들어진 「Children's Hospital」은 세계적으로 유명해 국외에서까지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1790년에 최초로 법대강의가 시작됐고 한때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였으며 미국의 독립에 관한 기본적인 문서와 기구가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법학의 이론적 기초를 완성하는데 펜실바니아 법과대학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학교와 연구기관이 설치돼 있으나 특히 경영학 전문학교인 「Wharton School」은 수많은 우수한 경영자를 배출한 학교로서 비즈니스스쿨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이다.

權榮勳(75년 法大卒)변호사

“신입회원의 入會를 환영합니다”

학 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서진영 조형일 후지이 손금주
김영일 신원용 이재현

▲중어중문학과

서봉교 임동희 강민호 임재수
류운중

▲영어영문학과

나경원 이세룡 이영진 김경욱
한대석 이민형

▲불어불문학과

이언주 신우철 신웅규 심화섭

▲독어독문학과

윤강욱 이종민 이세제 박강균
윤홍능 홍진표 김진욱 황규탁

▲노어노문학과

문의배

▲언어학과

정택수 조백만 김부현

▲국사학과

김석규 강석규

▲동양사학과

오승연 오태영 이성원 강현철
이외경 박인준

▲서양사학과

오 윤 김준기 여을환

▲철학과

이성준 이세락 이재철

▲종교학과

어수웅 윤병삼 조진만 민찬홍
임성재 이왕재 임병수

▲미학과

김수연 윤채영 정수경 김영기
이은직

▲고고미술사학과

김한수 류재상 이성제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윤지환 황규경 김상용 김하수
신용무 오치규 조용주 박경호

▲외교학과

박대우 윤재수 하태환 마 길

김승환 전영희 김선영 이주엽
김성곤 김주휘 양대석 서한석

김용남 도광현 박기순 정진태

▲경제학과

서영태 서해진 원종진 이용필
이정환 조원준 김태형 김형석

김규연 박병홍 이상욱 정완교
한성희 박동일 유해진 정상진

김진덕

▲국제경제학과

김영익 류석원 박의현 심형년
정병운 최인혁 김경렬 김성곤

안상준 윤석환 이종화 장진모
정혁훈 김광진

▲사회학과

우영민 김도형 유 진 이주형
조수호 조정화 김봉진 이무영

이광규

▲인류학과

김훈석 정성원 나 영 이상철
이응균 김영수 유정준 이탁관

▲심리학과

김경중 고현웅 이정수 김송우
김진숙

▲지리학과

오훈진 최창영 김규엽 이준호
제정원

▲사회복지학과

백승호 이윤룡 최민우 정창일

▲신문학과

임상호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이용석 김덕상 장우진 김동건
김연중 박종희 유호찬

▲계산통계학과

김시내 정혁철 이 승

▲물리학과

홍석철 박 권 장성한 배철현
석영찬

▲천문학과

김승중 최은아 김도연 최 형
신중수

▲화학과

박대우 윤재수 하태환 마 길

손상준 고영립 박진국

▲생물학과

김준범 김장현

▲분자생물학과

최은규

▲미생물학과

부선중

▲대기과학과

원재광

▲지질과학과

임동현

▲해양학과

류소영 최영우 장태홍 김용주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추연수

▲의류학과

김지현 유기숙 이복희

▲소비자이동학과

강정아 배현주

◇경영대학

▲경영학과

강태규 김준년 민병무 박성훈
양양현 이후록 전현수 정원석

정현동 조동신 나승호 변은창
강덕영 박준규 송상원 이기욱

이일복 정인섭 홍남권 황학연
남궁형진 류장우 박지현 배재현

왕동석 윤재화 채수양 최재성
한승호 허정욱 신석범

◇공과대학

▲건축학과

김지혜 박용진 이효석 이종수
황의경 유소영 이기석

▲공업화학과

홍왕표 김현국

▲금속공학과

이경만 장정균 최용삼

▲기계공학과

강중수 이용우 장현석 전경복

▲기계설계학과

소병석 최은호

▲산업공학과

백준기 박부회 최문영

김문관 홍종규

▲섬유고분자공학과

이윤희 정운창

▲무기재료공학과

이택준

▲원자핵공학과

우성호 이용준 박장연 고승일

▲자원공학과

김준영 이동권 방종식

▲전기공학과

문성진 박대중 조준호 주재영

▲전자공학과

이주한 신동호 신덕현

▲조선해양공학과

박문주 심정섭 오윤민 이기균

▲토목공학과

이용선 김경훈 한경훈

▲항공우주공학과

류정호 박기석 오동필

▲화학공학과

김영환

▲제어계측공학과

강덕원 오현수

▲컴퓨터공학과

김태용 최성희 최재영 남기준
이정현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

김진호 김성영 임성배 정 필
김호용 공병선

▲원예학과

김동호 홍인식

▲산림자원학과

최형근 김성수

▲임산공학과

이호영 정덕수 남재준 전제원

▲농화학과

최주영 김경수 김봉길 김진동
박유천 송영찬 김용태 이창섭

홍기원

▲식품공학과

권말녀 정현철 신길수 박영단

▲농경제학과

이종원 한 구 하진기 김천곤
백준기 박부회 최문영

▲동물자원학과

조정기 김낙식 김필진 김영만

▲농생물학과

임현호 백광현 배상준 조숙영
이철호 최재관 신철용

▲농공학과

문현묵 강성일 이창진 박진현
조진형 조정욱 박용신 신도현

▲농가정학과

최윤경

▲농업교육학과

양한주 신현중 심경정 신경필
박종욱 전성호 조천희 조양래

▲조경학과

최병춘 김태훈

◇미술대학

▲서양화과

이종혁 조현석

▲조소과

이승주 안종학

▲공예과

김명섭 이정민 최정윤 길현준
김용성

▲산업디자인과

우지희 신창환

◇법과대학

▲사법학과

권두영 김도균 김성은 박상수
박진원 신승호 심 경 안봉주

오정환 이광욱 이근수 이진성
이태관 정소민 정총령 조은형

조철호 조 향 진현민 정상규
김윤식 김진우 한지수 이순상

권재창 전성우

▲공법학과

김강대 김상현 김태수 류창범
서지원 성창열 이동훈 이성수

이영남 이재균 한성진 현성삼
공승배 김광덕 안재영 이동건

이재경 정경영 형상운 이두희
임상민 장찬수 최태원 한정일

윤문택 강교식 김대영 송경준
오창국 탁경국 김현준 조근식

◇사범대학

▲교육과

김성현 신춘호 이용철

▲국어교육과

양선아 홍석용 박성준 권계은

▲영어교육과

최창호

▲불어교육과

박석필 권혁은 김이한

▲독어교육과

변수연 이수철 김도완

▲사회교육과

강상호 김원철 김창균 최민령

최정민 노년환 장기정 박서기

▲역사교육과

황지숙 김남수 허 윤

▲지리교육과

윤신원 배성인 김석규 변훈숙

▲국민윤리교육과

김도형

▲수학교육과

김상훈 노재영 박장순 빈진욱

▲물리교육과

김태현 고장혁 김성진 박찬영

이규호 이세민 하 춘

▲화학교육과

박경훈

▲생물교육과

김경아 이은선 김윤숙

▲지구과학교육과

김성각 조재영

▲체육교육과

이동형 김승모 최준서 변호용

신영철 조한필 윤치환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이유경 서상일 정수웅

◇음악대학

▲성악과

김주연 한승연

▲작곡과

강창호 장진영 전오도 하재학

▲기악과

김성립 임은애 백사론 안지윤

여희구 전인창

▲국악과

김정원 박선희 고명욱

석사

◇문학

김진형 배개화 서재길 김진경
박미향 고연숙 강수영 강윤희
강은영 권진아 문도식 유정화
임승희 김보현 김진하 이지형
신동훈 신철식 권정임 권현정
김영찬 김충명 이희중 오영찬
한궁희 이경구 김정인 문이련
정명숙 강신주 김광수 오수영
장충섭 김재희 최종성 이은숙
최준화 이순자 장주경 김연희
정혜린 조항진 최종택 김선경
오세연 이영종 배익준 김영란
김준희 조현욱 박영아 김정훈
남기숙 신희천 최희경 강은진
한대권 박경희 여지영 홍찬기
김상목 이민경 주용범 박은영

◇정치학

양찬식 사 토 정우석 이재홍
김동렬 신기영 김연호 이재오

◇경제학

이선화 정재호 송승익 전현배

정희식 임채성

◇경영학

김원태 김홍택 노범석 송희성
이복우 신종태 안남기 양홍석
이준호 이태훈 김병철 노규환
위형희

◇법학

김권희 여미숙 성낙환

◇이학

김경석 이나훈 정성목 김동영
이기상 김일종 박명원 양임석
이상용 이원규 정연환 윤성철
이강환 조성로 구승희 변재철
배성진 심훈구 이원선 이인제
정상국 한정아 김대진 조승현
김진영 박유철 장연식 김진수
박수영 윤성화 황점식 이명진

◇가정학

성유진 최수선 김성은 김은숙

◇약학

이종필 이지영 이 진

◇공학

구용찬 김영택 김형준 유원열
이진우 신동초 박철민 진양석
민승기 광성우 유병태 황호송
정유석 홍석준 조운순 전창섭
이재훈 정태성 이종훈 조영선
송창식 김창구 오영교 이일순
이민수 한환수

◇농학

박상원 민홍진 신창훈 노광준
최현규 후 지 남경우 이성학
최종문 심원보 박종오 박흥현
정창훈 김효정 채숙희

◇교육학

남부현 한은구 강혜립 신을진
오현석 이재규 정근양 남수경
지정민 서혜경 문현정 최경숙
황필아 김정연 유연철 정선희
김건희 문지연 김연희 오병수
구희진 김양수 윤명희 심승희
양희경 박병춘 박정숙 이혜경
구자옥 이정민 김동영 차영태
이경식 문영진 송 욱 신창호
안정덕 최복규 황현선 이기형

◇수의학

강태천 남상섭 이상운 이진희
정광일 조운상 이해숙

◇미술학

조은영 조우호 유진택 김태곤
안수경 정희균 문선영

◇음악학

장옥남 오문숙 정경영 김문정
김지혜 박수진 박지원 윤혜진
이주희 정미진 정은경 최은규
박유미

◇의학

김연우 박은찬 박혜원 신창호
이종태 한혜승

◇간호학

김희진 박영숙

◇치의학

정성화 박경희

◇보건학

성창기 김민호 남원계 성민선
김상은 박재산 김경숙 김인곤
명지영 이모세 안혜진 우석균
유선미 이동수 정유진 윤중수
이집호 정해동 김도연 윤 준
유현숙 박천재 김선술 김종욱
김현경 변신철 원종인

◇행정학

이병래 엄정환 정 훈 김명선
최명수 임채욱 장세용 구기성
고규창 금현섭 김태진 김영태

◇도시계획학

김재윤 김민중 서성일 신대현
이진호 김성인 김용인 문희구
박준근 박현호 이민우 주준원

◇조경학

김성혜 김진희 신동규 이찬용
변종봉 방정민 권육진 금기용
박병오 양효현 위옥윤 이수희
이재완 이현주 한영해 황성준
황영도

박사

◇문학

권인한 유문선 김만수 김성곤
황선주 오종립 우재호 이미애
김명환 한기욱 이진준 김종인
손호은 조길예 김용한 권기록
신환중 송석희 안수영 안경화

류시중 이영석 남동신 김문식
표교열 강명희 하원수 김병준
신성곤 노종기 홍성흡 안미영
임석희 조성혜 류진석 이영환
정용준 이미숙 백경미 조영희
임영진

◇철학

문석운 김재현 이상훈 박윤호
백도형

◇정치학

정대화

◇경제학

김용복 김윤수 배용호 이상학

◇경영학

김재구 박남규 박 철 이규현
이윤철 신승묘 조호현 황준영

◇법학

지철호 이은기 김유미 전원배
정태욱 서철원 박운희

◇이학

서상원 정연관 남호수 이명재
이형원 하상호 권효탁 김지훈
이기재 박은식 김관식 송태권
임용식 정기태 권상덕 노현필
이창환 박 혁 조원렬 김학성
류건하 노환진 이태걸 안상두
장윤희 황승구 김명숙 최연희
우기민 장연규 주재훈 최철용
김애정 맹진수 김낙성 이동훈
이영석 강형규 박계윤 이창현
김태용 이정구 김정찬 송영일
강석구 문종양 김복희 이운나
박선경 김영리

◇약학

김연태 육광대 강희경 예덕천
이창훈 정영자 김종문 최남송
이은진

◇공학

주서령 송진규 석호태 이은열
오명환 이상수 김정선 이경환
김종연 류지호 민우식 최 주
김성연 김현태 여동훈 이성의
한승호 손홍균 이기훈 한홍남
이근식 이공훈 조관식 박경석
장세동 이귀형 류하상 문호지
박상호 최상현 안드라스 김영일
김태종 박상신 윤종욱 임원식
김민수 이덕주 이상천 양중식
김익흠 남기현 최기대 한진우

김덕준 김동래 박재환 오경식
조운조 김인태 김 신 성승환
김택겸 이은기 박찬영 김봉희
윤용범 이임택 이항범 김준석
민병혁 조영환 김주완 이병국
이주현 최우성 김경수 장성익
문석준 박인규 염재선 연윤석
이종문 이의은 심대영 권재현
오세현 김홍재 백인길 윤여홍
이종국 장순철 최용진 권영은
남동수 이강욱 이상구 정창욱
홍진기 김원철 박충수 김창환
노갑선 이규택 한석희 김성백

◇농학

안종웅 홍세진 박한용 박재현
김종평 최진남 정대규 한건준
민정기 김일준 안국환 이종경
이태훈 권 관 박형일 조병욱
김현욱 김용기 박규진 김학규

◇수의학

박태균 이은송 신태영 성환우

◇교육학

조동섭 심영택 김상욱 박성혁
강민석 고대만 변종현 김대균
이인재 유현주 권성기 김명환
신학수 배성제 이종이 유병민

◇의학

오세윤 배재문 정기현 구홍희
기창원 김영대 백정환 한종우
황광민 김도관 김병식 김병태
양성욱 장영표 한진수 김기호
김종수 김치정 김태홍 박용원
신명희 이병익 이 청 차상훈
허민강 유환영 이재용 이정상
임용철 조상록 최요원 추무진

◇간호학

박재순 이은희

◇치의학

여운택 박순욱 서가진 석창인
조현제 이재천 장기택 전해립
한희성 민정미 박경준 손진우
이광원

◇보건학

윤병준 문재우 박동욱 오진주

◇행정학

권용현 이재원 문영세 이강래
임경숙 강우원 강현수

“동문여러분 年會費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理事: 7월 19일 ~ 24일 · 一般: 7월 21일 ~ 24일〉

이 사

◇人文大學

▲김용현⑦큐닉스컴퓨터전문

◇社會科學大學

▲이계문⑦일신산업상무
▲제정규⑧국회의원

◇家政大學

▲이기영⑦서울대학교수

◇看護大學

▲이은옥⑥서울대학교수
▲문이숙⑤前이대부속병원

◇經營大學

▲김은상⑦모간스탠리부소장

◇工科大學

▲우지형④단국대 명예교수
▲강석규⑤호서대 총장
▲경상현⑤정보통신부장관
▲구광서⑤대광공업대표
▲김방태⑥(주)대우상무
▲김상권⑦현대자동차상무
▲김석진⑤前원자력연구소
▲김성범⑥쌍용자원개발사장
▲김영배⑦대흥공업기술소장
▲김용부⑥성균관대학교수
▲김유채⑦국립공업기술원장
▲김재선⑤前(주)삼호대표
▲김정순⑦前신한기업이사
▲김정중⑥포스코개발고문
▲김종석⑥선아가스상사사장
▲김종찬⑤대양실업사장
▲김진만⑤우정주재상사사장
▲김형백⑥현대중장비사업부
▲노준철⑦LG화학전문
▲마선일④경영지도사
▲박상수⑥세종건축사무소
▲박주천⑥국회의원
▲배상태⑤성일화학사장
▲백성기⑥동국합성사장
▲서국철⑥광운대 명예교수
▲설희순⑥삼성반도체전문
▲송태근⑥소호무역사장
▲신동성⑥삼성물산이사
▲심정섭④서울대 명예교수
▲유시영⑦자원연구소연구원
▲유익선⑥한국화약상무
▲유정렬⑥서울대학교수
▲이기평⑦범진기공전문
▲이상호⑦신성ENG상무
▲이신환④서강건축사장
▲이윤식⑤前수자원공사사장
▲이재건⑥우인화학사장
▲이정호⑥LG석유화학사장
▲이종현⑤유진기연사사장
▲임병문⑥경향건설부사장
▲장동욱⑥해외건설고문
▲정상근④상진개발사장
▲정석현⑤前서울시지하철공
▲조성구⑦동국대학교수
▲진영무⑥대우자동차이사
▲최은순⑥대우자동차사장

▲하영무⑦동일상사사장
▲함경호⑥덕천정밀사장
▲함승호⑦조흥화학공업회장

◇農科大學

▲김남용⑦낙농육우협회장
▲김동암⑥서울대학교수
▲손두식⑥경북대학교수
▲심재덕⑥동서철강회장
▲유용률⑦성보화학부장
▲윤대섭⑤성보실업부회장
▲이상규⑤중앙토건부사장
▲정창현④국회의원

◇文理科大學

▲권영자⑤前정무제2장관
▲갈현익⑤前서강대학교수
▲김교은④농협전문대학장
▲김성호⑥집현사사장
▲김영한⑥서강대학교수
▲김인규⑦KBS정치부장
▲김찬중⑤한샘루핀전문
▲김철순④오양시스템회장
▲김철용⑥해운항만청장
▲김현출⑥삼성생명보험사장
▲도흥렬⑥충북대학교수
▲박범진④국회의원
▲박종오⑥우양교역사장
▲안병화⑥前한국전력사장
▲육세홍⑦국민은행평동지점
▲이덕주⑥BBC영어연구원
▲이동복⑦민족통일연구원
▲이민섭⑥국회의원
▲이병호④아태변호사회회장
▲이상옥⑦前의무부장관
▲이재복⑥동양시멘트사장
▲이종률④국회사무총장
▲이창복⑥탐의국어학원장
▲이철배⑥LG클럽상무
▲인운섭④방송통신사무총장
▲임현진⑦서울대학교수
▲장성주⑦삼호특수사장
▲조중형⑥웅진그룹부회장
▲최 환⑥법무부검찰국장

◇美術大學

▲박대순⑤한양대 명예교수
▲박노수②대한민국예술원

◇法科大學

▲강용식⑥국회의원
▲고재화⑥수출입법규부장
▲고종진⑥동양맥주부회장
▲김길중⑥서울지법부장판사
▲김능환⑦수원지법부장판사
▲김도선⑥前철인냉동사장
▲김동규⑥대한주택공사사장
▲김동원⑥前대우투금감사
▲김병학⑥대검찰청형사부장
▲김수연⑥변호사
▲김승호⑥대전지검천안지청
▲김영태⑥한국담배인삼공사
▲김응재⑥前대양도료상사
▲김의식④롯데기획조정실
▲김인중⑥변호사
▲김창복⑤동방사사장
▲김창홍⑥대구지검경주지청
▲남상유⑤(주)태웅사장

▲노만주⑦변호사
▲문대탄⑥제주신문설위원
▲민수명⑥서울고법부장판사
▲박만호⑥대법원대법관
▲박순용⑥법무부교정국장
▲박종흡⑥국회입법차장
▲변규철⑥LG상사부회장
▲서성식⑥외환은행지점
▲신원구⑦구정통상사장
▲신정철⑥변호사
▲심영환⑥한도투금사장
▲안동일⑥변호사
▲오세방⑥세방인터내셔널
▲윤동윤⑥정보문화센터
▲이강환⑥생명보험협회장
▲이건웅⑥서울고법부장판사
▲이덕모⑦변호사
▲이백수⑥공인감정평가사
▲이상배⑥前서울시장
▲이승우⑦내무부공무원과장
▲이우영⑥(주)영화사장
▲이재웅⑥고려경제연구소장
▲이정환⑦한미銀신촌지점
▲임인택⑥교통개발연구원
▲전용학⑦서울방송정치부
▲정덕홍⑦서울가정법원판사
▲정동욱⑦창원지검진주지청
▲정석모⑥국회의원
▲정장현⑥국회의원
▲정재근⑥공인감정사
▲정찬형⑦고려대학교수
▲조영식⑥경희대학교수
▲조현발⑦변호사
▲최덕기⑥인천세관감사관
▲최동규⑥수자원공사이사장
▲최병한⑦유창기업총무고문
▲최상징⑥서울경검속고문
▲최석민⑥한아산업사장
▲한기태⑥정양기획회장
▲한명수⑦삼우통신공업전문
▲한일성⑥두산음료사장
▲함정호⑦변호사
▲홍이석⑦변호사
▲황인만⑥변호사

◇師範大學

▲김상준⑤국정교과서이사장
▲김연식⑤서울대학교수
▲김영찬⑤포항여고교장
▲김윤오⑤삼문중교장
▲김진규⑥양서중교장
▲김희분⑦연서중교장
▲노치숙⑦성심여대학교수
▲박성호⑥강원대학교수
▲박종원⑦부천고교장
▲박찬도⑥교육부교육연구관
▲이정태⑥용복중교장
▲이종락⑥양천중교장
▲임덕순⑥충북대학교수
▲정명진⑦前태평양제약
▲정문성⑦울산대학교수
▲최창섭⑥정진종합물산사장
▲홍성오④대성학원원장

◇商科大學

▲이종덕⑦前국제로터리
▲신명호⑤아세아세라텍사장
▲강신중⑥신세계이동통신

▲구제성④경인기계사장
▲권오균⑥국민대교수
▲김방연⑥태광산업전문
▲김병수⑥회승그룹기조실장
▲김봉규⑥한국기업리스사장
▲김선태⑥국민은행인사부장
▲김영규⑥서릉통상사장
▲김정순⑤(주)신영상임고문
▲김형만⑥前상호신용금고
▲김형영⑥경남은행장
▲문승영⑥前두산개발사장
▲박경희⑦동화리스금융사장
▲박근식④한일은행상무
▲박병규⑥한일증권고문
▲박영구⑦호텔신라사장
▲박영복⑥(주)우빈사장
▲박흥기⑦정신문화연구원
▲백은생⑥한국산업리스감사
▲손길승⑥유공해운사장
▲송교선⑦동아출판사이사
▲송인구⑥부스타보일러사장
▲신정철⑦해태전자사장
▲양태근④성광성냥공업사장
▲엄성도⑥신용보증기금부장
▲엄재을④前동산식품회장
▲오장환⑤(주)경방상임고문
▲윤영조⑥국민銀퇴계로지점
▲이계식⑥하성상호신용금고
▲이규성⑥건양대학교수
▲이상득⑥국회의원
▲이상학⑥제일銀과천지점장
▲이승섭⑦공인회계사
▲이영세⑤대한전자재료사장
▲이유현⑦영진무역사장
▲이한섭⑥前한전의정부지점
▲임재수⑤한신경제연구소장
▲장명섭⑤前경수투금이사
▲장영록⑦큐닉스컴퓨터
▲장종의⑥대구리스금융
▲전영원⑥이정인터내셔널
▲정택순⑦NHF 무역감사
▲정희영⑥선진종합사장
▲조덕찬⑦공인회계사
▲최성주⑤(주)대삼사장
▲최수영⑥동아출판사전무
▲한석운⑥덕신실리콘회장
▲함기창⑥한일은행조사역
▲홍면후⑤前대우중공업고문

◇獸醫科大學

▲강구환⑦제일화학이사
▲배상호⑥국립동물검역소장
▲이창구⑤선농양행기술고문
▲조사선⑦서울대학교수
▲한창훈⑦한도가축약품사장

◇藥學大學

▲노일협④前숙명여대학교수
▲김기풍⑤화생당약국
▲김삼영⑥영진약국
▲박영배⑦동아제약전문

◇音樂大學

▲백정심⑦서울대학교수

◇醫科大學

▲선호영④선병원이사장
▲강내열⑥강안과의원

▲고영박⑦강남성심병원내과
▲김관수⑦산부인과의원
▲김광명⑦서울대교수
▲김병천⑦김병천내과의원
▲김삼현⑦단국대부속병원
▲김영근⑦기화산부인과의원
▲김원석⑥김원석피부과의원
▲김찬영⑥부산대 명예교수
▲김창민⑦원자력병원내과
▲박대관⑥박의과의원
▲박성덕⑥새한병원원장
▲박정숙⑤성남중앙병원내과
▲박찬웅⑥서울대교수
▲배규룡⑦한독병원마취과
▲백남선⑦원자력병원
▲서창해⑦인하병원방사선과
▲석종식⑦중앙의대신경외과
▲신 건⑦신내과의원
▲신현호⑦제일병원내과과장
▲양대현⑦강남병원일반외과
▲양정성⑦양산부인과의원
▲오경균⑦원자력병원
▲윤동호④前서울대교수
▲윤세희⑦인덕의원원장
▲이봉화⑦한강성심병원
▲이용국⑥이용국내과의원
▲이재관⑦인천병원산부인과
▲이필우⑤이필우의원
▲장운석⑤서울대교수
▲지대훈⑦은혜산부인과의원
▲지삼봉⑥대혜의원
▲한동수⑥신경정신과의원
▲황정은⑥황내과의원

◇齒科大學

▲김동순④영신치과의원
▲강민선⑦한일치과의원
▲강영만⑥은성치과의원
▲권혁도⑦동국치과의원
▲김성오⑦김성오치과의원
▲김용운⑥김용운치과의원
▲김재권⑥김치과의원
▲문제원⑦문제원치과의원
▲박금태⑥박금태치과의원
▲박유년⑦박치과의원
▲방달호⑥방치과의원
▲유광길⑥유광길치과의원
▲윤창근⑥시립보라매병원
▲윤학영⑥윤학영치과의원
▲이희조⑤이희조치과의원
▲임순모⑦임순모치과의원
▲임창윤⑥서울대교수
▲정영주⑥정영주치과의원
▲홍예표⑦홍예표치과의원

◇大學院

▲박준성⑦성신여대학교수
▲윤동호⑥서울대교수
▲정상철⑦인천대교수

◇經營大學院

▲강희경⑦중소기업은행
▲박기범⑥정금당사장
▲이준학⑦태아산업회장
▲조정희⑦前전국대사무국장

◇保健大學院

▲김영숙⑥성마로병원과장

▲양광희(74)적십자간호전문대
▲윤용길(70)삼이상사사장
▲이향련(73)경희대학교수

◇司法大學院

▲김기수(65)검찰총장

◇新聞大學院

▲곽찬호(71)평통자문회의국장
▲이준우(75)조선일보편집국장

◇行政大學院

▲김인동(67)서울시의회의원
▲손선규(64)신문협회사무국장
▲양석호(67)前상지대총장
▲어창수(64)대림공영고문

일 반

◇人文大學

▲석종욱(77) ▲유명숙(77)
▲임승필(88) ▲정병문(81)
▲정재문(76) ▲홍기선(83)

◇社會科學大學

▲김기범(85) ▲김기수(82)
▲김은조(86) ▲엄태중(85)
▲이건희(77) ▲이석호(85)
▲이재기(79) ▲정해용(54)
▲황성훈(88)

◇自然科學大學

▲김영제(88) ▲김주영(87)
▲김해중(94) ▲서인실(85)
▲신정훈(87) ▲이봉완(87)
▲최의규(94) ▲황찬용(85)

◇家政大學

▲김진호(75) ▲서유미(86)
▲서해석(77) ▲여정성(83)
▲임순필(74)

◇看護大學

▲민복희(88)

◇經營大學

▲김정환(78) ▲노상규(87)
▲오창호(82) ▲윤택현(78)
▲이준호(87) ▲주우진(83)
▲지윤미(66) ▲진형노(91)
▲김명관(86)

◇工科大學

▲이진근(41) ▲강성호(86)
▲강태영(61) ▲경신호(59)
▲고재선(52) ▲권영각(70)
▲권오현(75) ▲김남용(71)
▲김문수(92) ▲김부영(65)
▲김선장(69) ▲김억조(74)
▲김을권(61) ▲김인달(74)
▲김재동(74) ▲김종국(65)
▲김종욱(70) ▲김종한(67)
▲김학철(74) ▲김형남(94)
▲김효원(63) ▲나상천(75)
▲노태성(82) ▲박대복(67)
▲박장영(64) ▲박지식(78)
▲박희규(58) ▲배오섭(80)
▲변은자(55) ▲변운현(70)
▲변일균(50) ▲서대웅(92)
▲송병래(61) ▲안 인(72)
▲예미란(85) ▲오세환(65)
▲유정근(57) ▲이광성(70)
▲이규생(61) ▲이복영(60)
▲이상화(86) ▲이세준(88)
▲이종열(50) ▲이충길(68)

▲이흥근(69) ▲임강원(67)
▲전동완(60) ▲전봉수(68)
▲정영우(68) ▲정대화(75)
▲조장희(49) ▲조준희(85)
▲조충휘(70) ▲최성식(92)
▲최순달(54) ▲최준수(87)
▲최항순(70) ▲허 환(67)
▲홍성표(71)

◇農科大學

▲강원봉(83) ▲강항운(57)
▲김기수(61) ▲김영환(62)
▲김재휘(88) ▲김종대(79)
▲김종문(57) ▲노상하(70)
▲문대천(64) ▲박 호(63)
▲서호석(56) ▲신덕현(71)
▲연영호(70) ▲원천연(69)
▲윤인수(86) ▲이용국(66)
▲이태종(83) ▲이희석(61)
▲정정갑(66) ▲조규옥(56)
▲조성지(56) ▲최동룡(74)
▲최재복(54) ▲한경희(86)

◇文理科大學

▲권규식(57) ▲김기봉(58)
▲김세기(70) ▲김재현(56)
▲김정우(68) ▲김종렬(75)
▲김종성(62) ▲김해도(60)
▲도태균(67) ▲문양수(63)
▲박완규(67) ▲박종렬(58)
▲백상기(70) ▲송태훈(64)
▲양석주(74) ▲어한수(59)
▲오세영(68) ▲이달용(70)
▲이상학(74) ▲이순자(61)
▲이씨종(71) ▲이정자(63)
▲임승래(70) ▲임채호(64)
▲장호식(64) ▲장화자(55)
▲조성균(60) ▲조장호(65)
▲채선기(59) ▲최형남(70)

◇美術大學

▲김경수(63) ▲김춘강(68)
▲신완식(77) ▲유인수(70)
▲윤명노(60) ▲이기향(79)
▲이병술(86) ▲이인옥(74)
▲이희석(89) ▲조재구(64)
▲조정승(65) ▲한혜경(79)

◇法科大學

▲박인각(38) ▲이보형(37)
▲서재식(41) ▲강동진(71)
▲강성욱(89) ▲강정남(66)
▲곽윤직(51) ▲김광현(68)
▲김동현(71) ▲김종식(57)
▲김태규(49) ▲김홍석(89)
▲김희용(64) ▲도지훈(56)
▲박성철(79) ▲박승로(82)
▲배재연(59) ▲서상현(55)
▲석성환(59) ▲신명중(80)
▲신용한(61) ▲신재현(70)
▲양인평(64) ▲엄진현(65)
▲오상태(60) ▲유태현(64)
▲윤성혁(62) ▲이민찬(61)
▲이채주(57) ▲임완규(69)
▲임흥근(62) ▲정선숙(63)
▲정제화(55) ▲제갈용우(68)
▲조대연(73) ▲조석래(55)
▲차상필(58) ▲최선호(84)
▲최창호(89) ▲최태식(76)
▲홍성좌(56) ▲황형모(75)

◇師範大學

▲김유선(55) ▲한계숙(34)
▲허봉출(42) ▲황남룡(39)
▲고영자(64) ▲김억관(71)
▲김영자(61) ▲김원규(79)

▲김종규(66) ▲김지자(63)
▲남영우(75) ▲박배훈(67)
▲박종덕(93) ▲방효석(61)
▲송기창(83) ▲신동철(63)
▲신영애(58) ▲안정화(59)
▲유지영(93) ▲윤학진(63)
▲이경우(49) ▲이배희(55)
▲이진무(75) ▲이해룡(59)
▲이화숙(61) ▲장영모(65)
▲전남석(59) ▲정일동(55)
▲정태범(64) ▲조규홍(64)
▲조명렬(53) ▲진은숙(65)
▲최용섭(58) ▲최재진(60)
▲허광욱(61) ▲홍종봉(68)
▲황경화(57)

◇商科大學

▲오영욱(48) ▲홍성철(48)
▲강태석(55) ▲고승현(72)
▲김동렬(63) ▲김만우(71)
▲김유일(57) ▲김정기(65)
▲김제심(56) ▲김종희(69)
▲노영환(59) ▲문무상(58)
▲문환일(58) ▲박동륜(54)
▲박종달(63) ▲박종환(71)
▲배길훈(70) ▲백창기(65)
▲손재환(73) ▲오태용(68)
▲윤병목(60) ▲윤정희(58)
▲이길호(59) ▲이병호(70)
▲이영상(55) ▲이익치(69)
▲이재등(61) ▲이준근(65)
▲이희희(75) ▲정몽준(75)
▲정용호(70) ▲정인식(64)
▲정정숙(53) ▲정조흥(65)
▲정희경(65) ▲조남직(63)
▲조동희(60) ▲조명재(69)
▲최행주(70) ▲한상룡(64)
▲한재석(66) ▲현인준(69)

◇獸醫科大學

▲김중남(84) ▲배원환(60)
▲변영근(56) ▲송기준(65)
▲원문상(66) ▲조동진(92)

◇藥學大學

▲한용필(41) ▲김영호(52)
▲김정희(61) ▲김충경(69)
▲백연희(81) ▲유문자(68)
▲이주형(71) ▲이훈파(89)
▲조기창(68) ▲최숙경(59)
▲최호강(56) ▲한달수(77)

◇音樂大學

▲고순자(56) ▲안종덕(88)
▲이수철(68) ▲전미영(78)
▲최승준(72) ▲한은재(64)

◇醫科大學

▲조승현(49) ▲김병엽(56)
▲김영택(52) ▲김재승(89)
▲남상룡(79) ▲박용섭(56)
▲박은호(83) ▲박찬후(89)
▲박호창(38) ▲신찬수(87)
▲안영찬(59) ▲이상운(77)
▲이정운(60) ▲이종국(87)
▲이흥주(84) ▲전지일(55)
▲정경희(73) ▲정민화(79)
▲최영길(59) ▲홍원선(77)
▲홍재웅(67)

◇齒科大學

▲곽난희(88) ▲구경본(72)
▲김기석(74) ▲김용남(74)
▲김우철(75) ▲김종열(66)
▲김진규(62) ▲김현덕(82)
▲김혜현(85) ▲문명용(84)

▲박동귀(59) ▲박동욱(73)
▲박동일(83) ▲양재희(81)
▲양홍서(81) ▲왕상현(57)
▲이교인(72) ▲이중문(67)
▲이종훈(61) ▲임병채(86)
▲정현석(86) ▲주명자(69)
▲최동룡(59) ▲한광수(78)
▲한병소(69)

◇大學院

▲김상태(84) ▲이정주(49)

◇經營大學院

▲이찬준(71) ▲조현국(76)
◇教育大學院
▲변정환(65) ▲서정선(70)

◇行政大學院

▲김경만(70) ▲정여철(74)
▲최재열(80)

◇環境大學院

▲양건석(93)

지 부

◇공주교대

▲문낙진 ▲이광하
▲김태훈 ▲박찬영
▲진영일 ▲강경원
▲서재천 ▲이우진
▲이제룡 ▲전우수
▲이복선 ▲윤길수
▲김경호 ▲김현중
▲민미란 ▲이민태
▲최학주 ▲강영하
▲임시혁 ▲서수현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



「총동창회 국민카드 1
만번째 신청자인 姜孝植
(61년 齒大卒·인제대교수
겸 백병원치과부장)」동문
이 발부된 카드를 처음
사용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발급기간: 8월 1일 ~ 8월 31일〉

법 인

◇(주)건영통상 金光俊
(69년 法大卒)=4좌

개 인

◇人文大學

▲김영진(83) ▲김철규(89)
▲예미란(85) ▲오성윤(89)
▲이강근(85) ▲이세영(77)

◇社會科學大學

▲홍성수(88)

◇自然科學大學

▲김수형(88) ▲김진흠(88)
▲노혜림(84)

◇家政大學

▲김선경(79)

◇看護大學

▲오세영(70)

◇經營大學

▲이광영(89) ▲장영철(80)
▲정재섭(86)

◇工科大學

▲김종진(64) ▲노충근(85)
▲박병윤(85) ▲변 용(66)
▲서상철(74) ▲송재훈(87)
▲오익환(61) ▲유현일(61)
▲은근수(65) ▲이기봉(79)
▲이명천(83) ▲이보영(76)
▲이연희(79) ▲조규식(72)
▲한중훈(74) ▲황철호(81)

◇農科大學

▲김남용(57) ▲윤상묵(88)
▲이병천(59) ▲임정부(65)
▲한광우(74) ▲허 명(85)

◇文理科大學

▲김광태(75) ▲손창구(75)
▲이만우(57) ▲이병재(64)
▲이 용(74)

◇美術大學

▲조정승(65)

◇法科大學

▲김기섭(68) ▲김종식(57)
▲김철현(79) ▲김학원(70)
▲라종훈(88) ▲변득수(67)
▲변영훈(81) ▲서영덕(61)
▲신운환(76) ▲오동석(88)

▲이원규(79) ▲정영화(85)
▲허승태(77)

◇師範大學

▲김준문(52) ▲박인국(67)
▲안종만(57) ▲이대복(65)
▲임진영(86) ▲조효성(32)

◇商科大學

▲강석홍(70) ▲김제심(68)
▲민병국(66) ▲서승원(67)
▲이순학(68) ▲이승섭(67)
▲이 옥(66) ▲정상근(72)
▲정주병(66) ▲홍두표(65)
▲황건호(74)

◇音樂大學

▲이석원(83) ▲한태원(77)

◇醫科大學

▲강진화(86) ▲김 암(79)
▲양정현(73) ▲이상준(66)

◇齒科大學

▲윤훈용(57)

◇經營大學院

▲정남진(76)

◇保健大學院

▲김정수(81)